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MGH라면 병원내 감염 없었을 것”

관련기사: MERS 특집 14, 16, 18면

MGH 전문가, 한국 초기 대응 의문 제기
확진 환자 아닌 감염 의심 환자부터 격리
메르스, 단순 독감으로 취급해선 안돼



에리카 세노이 MGH 감염관리 전문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한국의 메르스 사태를 두고 미국 최고 병원 중 하나인 MGH의 한 전문가는 사태 확산의 책임이 병원에 있다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다.

하버드 의대 부속 병원인 MGH(매사추세츠 제너럴 호스피탈) 에리카 세노이 감염관리팀 부팀장은 한국 메르스 환자들의 대부분이 병원내에서 감염됐다는 것에 대해 확연한 놀라움을 표시하며 MGH였다면 병원내 감염을 없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보였다.

지난 17일 세노이 박사는 한국의 메르스 확산에 대해 “병원내 감염이라니...?”라며 한국 병원의 방역관리체계에 대한 의구

심을 표시했다.

세노이 박사는 “성공적인 메르스 차단을 위해 병원에 취해야 할 조치는 두 가지다. 첫째, (메르스의) 초기 발견과 감염 확진 환자가 아닌 ‘감염 의심 환자’ 의 격리이며 둘째, 감염 의심 환자에게 필요한 예방책의 즉각적인 실행” 이라고 밝혔다.

MGH의 예를 든 세노이 박사는 “MGH에 메르스 의심 환자가 도착한다면 (환자의

) 여행 기록을 확인한 후 즉각적으로 환자를 격리하고 이에 따른 예방책을 실행할 것이다. 따라서 병원내 감염은 있을 수 없었을 것” 이라며 병원의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노이 박사는 초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감염 확진 환자가 아닌 ‘감염 의심 환자’ 에 대한 조치이다. 감염 확진 환자를 격리시키는 것은 이미 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 최초 감염자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서야 격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는 검사를 요청한 지 이틀이나 지난 후였다.

보도에 따르면 최초 감염자는 검사를 요청한 4개의 의료기관 중 3곳에서 중동지역 여행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는 것 또한 병원의 책임이라는 것이 세노이 박사의 말이다.

세노이 박사는 “질병의 감염을 막기 위한 정말 중요한 예방책 중 하나가 의심환자의 공식적인 여행 기록 확인”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노이 박사는 메르스를 단순한 독

▶▶2면으로 계속

7월 3일자 보스톤코리아 정기 휴간

지난 겨울 폭설, 올 여름 틱 개체 수 급증 전망

쌓인 눈, 틱 번식환경 제공
틱, 라임병 옮겨 야외활동 주의 요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지난 겨울 내린 폭설로 인해 올 여름 틱(Tick)의 개체 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야외 활동 시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로드아일랜드 대학의 틱엔카운터 리소스 센터(TickEncounter Resource Center)의 토마스 매터 디렉터는 “폭설 덕분에 틱이 매서운 추위를 견딜 수 있었다” 며 “올 여름에는 라임 병을 옮기는 틱이 대폭 증가할 전망” 이라고 전했다.

겨우내 쌓여있던 엄청난 양의 눈이 오히려 절연체 역할을 하면서 틱이 살아남을 수 있는 따뜻한 환경을 제공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매터 디렉터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봄에는 지난해 봄보다 틱의 개체 수가 30% 가량 증가했다.

매사추세츠 공중보건부는 라임 병(Lyme Disease)을 옮기는 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라

▶▶2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할인항공권 전문

From **\$1095**

보스톤-인천 왕복항공권 비수기 특가

대한항공+국내선 (뉴욕경유)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출발기한은 2015년 7월 16일부터 12월 9일까지이며, 출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돌아오셔야 합니다. 또한 발권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항공권 예약상황은 실시간으로 변동되며, 이에 따라 항공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66-619-4223 (Toll Free) / 617-424-8956

한국어 상담 월~금 12pm~9pm
예약센터 영어, 일어 only 1-877-489-4223 (24/7)
이메일 info@iace-korea.com 온라인 예약 www.iace-korea.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iacetrvlkr
카톡상담아이디: IACEKOREA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오누리 변호사
June N. Oh, Esq.
부동산 전문 변호사

The Law Offices of Sonja B. Selami

Tel: 508.424.0600
Dir: 508.665.1544
Fax: 508.665.1537
june@selamilaw.com
7 Muzzey St. Lexington, MA 02421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원태 Realtor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3156 Direct: 617.642.5670
won@bostonpremierrealty.com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의심 환자의 여행기록 확인, 병원에 책임있다

▶▶1면에 이어서

감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함께 전했다.

세노이 박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종종 가벼운 증상을 보이며 이와 같은 증상은 스스로 제어된다. 메르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사율이 30%에서 40%에 달하기 때문에 단순한 독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메르스에 감염돼 사망한 환자는 대부분이 당뇨, 폐질환, 심장질환, 신장병, 암 등의 지병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는 것이 연구의 내용이지만 어디까지나 메르스는 2012년에 처음 발견된 병으로 선부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 세노이 박

사의 견해다.

지난해 5월 미국 플로리다 주와 인디애나 주에서 각 1명의 메르스 환자가 나왔다. 여행기록을 확인한 두 병원 모두 감염의심 상태였던 환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즉시 취했고 접촉했을 것으로 파악되는 사람을 모두 찾아 자택격리시켰다.

이처럼 신속한 초기 대응에 두 환자 모두 각각 10일, 11일만에 음성 판정을 받았고 2차 감염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18일(한국시간) 시점에서 사망자 23명, 확진자 165명, 격리자 6,729명이다.

dyoo9146@bostonkorea.com

라임 병 옮기는 틱 주의, 야외활동 후 반드시 온 몸 확인해야

▶▶1면에 이어서

임 병은 초기 증세는 과녁 모양의 발진으로 물린 후 1~2주 후에 붉은 반점이 생긴다. 이후 열, 오한, 근육통, 관절통, 두통, 가슴 두근거림, 감각 이상 등을 동반한다.

공중보건부 측은 1990년대 이후 라임 병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지난 2013년에는 접수된 케이스만 4,080건으로 미접수건까지 합하면 6천건이 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 질병예방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13년 틱에 물려 발생하는 라임병의 발생 수는 매년 약 30만명에 달하며 매사추세츠 주는 펜실베이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라임 발병률을 보였다.

틱은 숲이 우거진 곳에 주로 서식하지만 공원이나 잔디, 나무 그늘 아래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틱이 많은 곳은 피할 것을 권장하며 캠핑이나 숲속을 산책할 경우, 외출 전 곤충 퇴치제를 뿌리고 긴 소매의 옷을 입을 것을 권장한다. 바지 단은 양말 안에 넣는 것이 좋다.

야외 활동 후에는 틱이 달라붙어 있진 않은지 온 몸을 확인해야 한다. 틱은 깨알만한 크기로 눈에 쉽게 띄지 않기 때문에 옷으로 가린 부위



틱에 물렸을 경우 핀셋을 이용해 뽑아내고 물린 부위를 소독해야 한다. 라임병 감염 여부에 대한 진단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와 머리카락도 살살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틱에 물렸을 경우에는 처내거나 눌러 죽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핀셋을 이용해 뽑아내고 물린 부위에는 살균제를 발라야 한다. 라임병은 초기에 치료할 경우 대부분 회복되므로 일찌감치 의사에게 감염 여부 진단을 받는 것도 좋다.

미질병센터가 권장하는 틱 예방법

1. 신발에 곤충 퇴치제를 뿌린다. 애벌레 단계의 틱은 떨어져 뒹구는 나뭇잎에 붙어 있다가 이를 밟는 신발에 붙는다. 이들은 재빨리 몸으로 기어올라 옷의 안쪽에 숨는다.

2. 바지에 퇴치제를 뿌린다. 반드시 바지 안쪽과 바깥쪽에 동시에 뿌려야 한다.

3. 풀밭 등 야외에서 활동하고 들어오면 바로 옷을 벗어 건조기에 넣고 고열로 10분간 돌린다. 물론 몸도 혹시 틱이 파고 든 흔적이 없는지 점검한다.

4. 애완견을 키우는 집은 개의 몸에 틱이 있는지 살피고 살충제를 뿌린다. Advantix II, Seresto collars 등이 효과적이다.

5. 야드에는 전문 살충제 살포인을 불러 예방한다. 합성 피레트로이드(pyrethroid)가 효과적이다.

dyoo9146@bostonkorea.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펴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매직 스트레이튼	Magic Straightening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Threading	Threading
디지털 펴 & 셋팅 펴	Digital Perm & Setting Perm
이론 펴	Iron Perm
헤어 칼라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왁싱	Waxing
얼굴 마사지	Facials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종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주체전에 참가하는 보스턴 야구팀이 지난 13일 캐봇 필드에서 조형구 보스턴체육회 회장(왼쪽)과 함께 출정식을 가졌다

보스턴체육회, 미주체전 출정식 가져

야구팀, 탁구팀 총 25명 참가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유대인 기자 = 보스턴체육회(회장 조형구) 주최의 미주한인 체육대회 보스턴 대표팀 출정식이 지난 11일 목요일 뉴튼 소재 캐봇 필드에서 개최됐다. 이번 미주 한인 체전에 보스턴에서는 야구팀과 탁구팀 총 25명이 참가하게 된다. 보스턴 대표팀의 단장은 야구협회 회장인 한규만 선수가, 총 감독에는 현대 유니콘스 선수 출신인 하득인 야구 감독이 선임되었다.

보스턴 체육회 조형구 회장은 “여러 악조건 속에서 단장, 감독을 포함한 총 25명의 보스턴 대표팀이 미주체전에 참가 한다며 열심히 경기에 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 주기 바란다” 고 전했다. 보스턴체육회는 지난 4월부터 약 두 달간 육상, 소프트볼, 농구, 수영, 배구 등의 다양한 종목의 선수 모집에 나섰다. 선수부족, 일정상의 문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야구와 탁구 두 종목만 참가하게 된 것이다. 미주 한인 체전에 참가하는 야구 대표팀 선수로는 김민수, 김영한, 권영대, 이학재, 이승원, 황득기, 황승

현, 유영민, 정민수, 노승혁, 이충훈, 주민석, 김원석, 이경민, 이규연, 이강민, 김성기 이상 17명이 있으며 탁구 대표팀으로는 이진원, 도의득, 김영기, 서해룡, 윤성훈, 신완철 이상 6명의 선수가 있다. 제 18회 미주한인 체전은 오는 19일부터 2박 3일 동안 워싱턴 DC의 허든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뉴욕과 워싱턴 DC 체육회, 오렌지카운티 체육회, LA체육회가 종합순위 1위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새생활센터 무료 건강검진 제공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 새생활센터(대표 송연호)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무료 건강검진이 오는 27일 토요일 스톤햄에 위치한 SDA 한인교회에서 개최된다. 내과 검진을 제공하는 이날 무료 검진 서비스는 매사추세츠 주민뿐 아니라 방문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과는 처방전을 무료로 발행할 예정이다.

한편, 당뇨병 검사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고 싶은 사람은 이날 아침식사를 거르고 오면 보다 정확한 혈액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확한 건강 상담을 위해 BMI(Body Mass Index)와 체지방검사도 실시된다.

환자들의 진찰 순서는 선착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진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스턴 새생활센터 송연호 대표(317-374-4786 혹은 781-279-3270)에게 하면 된다.

무료진료 안내
일시: 2015년 6월 27일 토요일 오후 2~4시
장 소 : Boston Korean SDA Church(4 Spring St, Stoneham, MA 02180)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턴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영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대인 Dain Yoo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악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마신형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urdays

Class	Time
SAT II MATH IIC	9:00 AM - 11:00 AM April 4 - May 30
SAT II / AP Chemistry	11:30 AM - 1:30 PM March 21 - May 30
SAT II / AP Biology	2:00 PM - 4:00 PM March 21 - May 30

SAT Plus Summer Sched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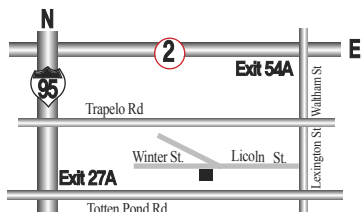
July 6 - July 24

Class	Time
SAT I (old) prep	8:00 AM - 12:00 PM Monday - Friday
SAT I (new) prep	1:00 PM - 5:00 PM Monday - Friday

August 3 - August 21

Class	Time
SAT I (old) prep	8:00 AM - 12:00 PM Monday - Friday
SAT I (new) prep	1:00 PM - 5:00 PM Monday - Fri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보스톤 시 "문화행사 풍성한 도시 만들겠다"

'창조 보스톤' 프로젝트 런칭 실시 각국 영사관 및 예술단체 참여 기대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보스톤 시 문화부장 줄리 부로스씨가 지난 17일 시청에서 소수민족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 프로젝트 '창조 보스톤(Boston Creates)'에 관해 지역 언론사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부로스 문화부장은 본격적인 기자회견에 앞서 "(보스톤 시는) 매일 각자의 일터에서 창조를 이루는 개인들로 구성된 도시"라며 "창조적인 생각을 행동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 문화와 예술이 더욱 풍성한 보스톤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되는 '창조 보스톤'은 보스톤 시가 주관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로 보스톤 내 퍼레이드나 전시회, 공연 등의 다양한 문화 행사를 추진한다. 오는 9월까지 여론 조사나 지역 모임을 통해 아이디어를 수렴, 내년 여름부터는 본격적인 이벤트 실시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로스 문화부장은 "대학 교수나 건축가, 인류학 연구원 등 보스톤 사회에서 존경받는 많은 구성원들이 이 프로젝트에 도움을 줄 것을 약속했다"며 "여러 지역의 예술인이나 청소년 등

문화생활에 관심있는 모두가 참여해 아이디어를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로스 문화부장은 각국의 영사관이나 문화 및 예술 단체들의 참여가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며 이와 같은 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보다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기획하기 원한다는 바램을 전했다.

한편, 부로스 문화부장의 말에 따르면 마틴 월시 보스톤 시장은 임기 첫 해에 문화부 예산을 두 배로 확대했으며 최근에는 25%를 추가로 늘리는 등 보스톤 시의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는 차이나타운 공공도서관 설립, 올스톤 무료 스케이트보드장 등에 대한 질문이 오갔으며 지역 언론 관계자들은 창조 보스톤 프로젝트를 통해 실시됐으면 하는 이벤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기기도 했다.

한 남미 잡지사 관계자는 "일부 문화에서는 타투나 피어싱이 큰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에서 다소 소외받는 타투나 피어싱 문화가 재조명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침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에게 나눠진 작은 패키지에 창조 보스톤 로고가 그려진 타투 스티커가 있어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보스톤코리아를 비롯해 중국, 이탈리아, 중남미, 아일랜드, 아이티 등의 소수민족 언론 관계자 18명이 참석했다.

dyoo9146@bostonkorea.com



(위) 보스톤 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내 각종 예술 전시회 및 문화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듀이 스퀘어 파크에 설치된 쉬니크 스미스의 작품 '세븐 문 정션' (아래) 소수민족 언론사와 기자회견을 갖는 줄리 부로스 보스톤 시 문화부장(왼쪽)과 조지앤 마티네즈 전 보스톤니안 디렉터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 A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7080 콘서트 "추억에 빠질 준비 되셨나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사랑과 평화, 장계현과 템페스트, 디 패밀리, 영사운드, 함중아와 아이들, 건아들... 70년대와 8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들이 오는 28일 보스톤 공연을 앞두고 있다.

7080 콘서트를 기획한 김경원 한인 회장은 "천 명 관객이 목표"라며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신나게 놀아보자"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6일 시애틀에서 열린

이들의 무대는 천 여명의 관객을 동원해 성황을 이뤘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도 그때 그 시절의 목소리로 히트곡들을 열창하는 가수들의 무대에 일부 여성 관객은 힘껏 '오빠'를 외치기도 했다고.

한인들의 추억과 향수를 자극할 7080 콘서트에는 사랑과 평화의 '한 동안 뜬했었지'와 '장미', 장계현과 템페스트의 '잊게 해주오', '나의 20년' 등 수많은 히트곡들이 준비

되어 있다.

보스톤 공연은 오는 28일 일요일 우번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입장료는 \$60이며 예매는 보스톤 한인회(781-933-8855)로 문의하면 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6월 28일 일요일 오후 6시

장소: 우번 고등학교(88 Montvale Avenue, Woburn, MA 01801)

dyoo9146@bostonkorea.com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가 지난 9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됐다. 왼쪽부터 김성혁 민주평통 회장, 오준 유엔 대사, 노유진 피아니스트와 모친

유엔 세계 장애인 권리 대회 개최

오준 대사, 당사국 차기 의장 선출
노유진 시각 장애인 피아니스트
김동무대 선보여

회기에서는 오준 대한민국 주 유엔 대사가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어 UN 장애인 특별보고관, 유엔 사무총장 특사 등과 함께 장애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가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돼 전세계 154개국 장애인 협약 당사국 외교관과 각국 장애인단체 NGO 대표들이 참석했다.

'장애인 권리 주류화'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장애인들의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교육환경 향상 등의 과제를 가지고 열린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별히 이번 제8차 당사국 유엔

한편, 지난 보스톤 평화통일 콘서트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한 노유진 시각 장애인 피아니스트가 특별 초대되어 각국 UN 대표단들에게 감동적인 피아노곡을 연주했으며 민주평통 김성혁 회장이 유엔 대표부와 공관 행사에 참석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한국 정부 인사로는 김정록 의원, 함진규 의원, 최종균 보건복지부 국장 등이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한인사회 모습 담은 사진 공모전 개최

7월 31일 공모 접수마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오는 10월 5일 '세계한인의 날'을 맞아 재외한인들을 대상으로 제3회 사진 공모전이 개최된다.

사진 공모전을 주관하는 재외동포재단 측은 "사진을 좋아하는 재외동포들의 즐거운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공모전에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올해 공모전의 주제는 ▲이민 한인

들의 직장 및 학교생활 등을 담은 '재외동포 삶의 현장' ▲세계 각지에 형성된 코리아타운의 전경을 담은 '코리아타운' ▲현지인과의 교류 활동 및 타인종 커뮤니티와의 교류와 축제, 한인사회 축제 등을 담은 '세계 속의 한인' 등이다.

대상 1명에게는 100만원의, 우수상 1명에게는 50만원, 입선 11명에게는 각각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 13개 작품은 100여개의 엄선된 우수작과 더불어 한국내에서 열리는 전시회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응모 기간은 5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온라인(www.korean.net)에서

접수하면 된다. 중복 응모는 가능하지만 1개 이상의 작품이 선정될 때에는 한 주제의 상위성적만이 인정된다. 응모시 반드시 촬영일시 및 장소, 사진제목, 설명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날로그 사진은 원본사진을 300dpi 이상으로 스캔해 JPEG 파일로 응모해야 하며, 디지털 사진은 픽셀 2,000x2,800 이상(파일용량 2MB 이상)의 JPEG 파일로 응모하면 된다.

사진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www.korean.net)를 참조하면 된다.

dyoo9146@bostonkorea.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즐거찾는 보스톤 명소, 보다 합리적인 멤버십 구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동물원이나 박물관, 놀이공원 등 아이들이 유난히 좋아하는 명소가 있다. 몇 번을 가도 질리지 않는다거나 때마다 새로운 이벤트나 전시가 열려 '즐거찾기' 목록에 오른 명소가 있다면 가족 단위의 연간 멤버십을 끊는 것을 추천한다.

온 가족이 놀러가면 기본 입장료에 각종 특별 전시관 입장, 식사비용, 기념품, 주차비까지 비용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멤버십을 구매하면 대부분의 항목에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무엇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당 두 번만 방문해도 멤버십을 구매하는 것이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지면을 통해 보스톤 명소 중 합리적인 멤버십을 제공하는 곳을 소개한다.

▶뉴잉글랜드 동물원

1회 방문: \$66 (4인 가족 기준)

연간 멤버십: \$110

책이나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동물을 눈 앞에서 구경하고 심지어는 만져볼 수도 있는 동물원은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장소가 아닐까. 프랭클린 파크 주(Franklin Park Zoo)와 스톤 주(Stone Zoo)는 뉴잉글랜드의 대표적인 두 동물원으로 멤버십을 구매하면 두 곳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멤버십을 구매하는 회원은 동물원내 식당이나 기념품 가게에서 1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각종 특별 이벤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방문객이 많은 날에는 줄을 서지 않고 익스프레스 입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 또한 미 전국 140여개 이상의 동물원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어 다른 주를 여행할 때에도 알뜰하게 멤버십을 활용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 4명까지 총 6명이 입장할 수 있는 연간 멤버십은 \$110이다. 4인 가족이 1회 방문 시 구매하는 티켓은 총 \$66로 두 번만 방문해도 멤버십을 끊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과학 박물관

1회 방문: \$86(4인 가족)

연간 멤버십: \$129

신비한 과학의 세계를 감상, 체험하는 과학 박물관(Museum of Science)은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다소 부담스러운 입장료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연간 멤버십 구매를 추천한다.

멤버십은 기본(Basic)과 프리미엄(Premium)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제공되는 혜택에 차이가 있다. 기본 회원은 플라네타리움, 아이맥스 상영관 등의 특별전시관에 2번 입장할 수 있으며 주차비 1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프리미엄 회원은 특별전시관 입장 4회와 2시간 주차비 면제를 받는다. 기본과 프리미엄은 각각 \$129, \$160이다(5인 기준). 멤버십은 가족관계에 상관없이 게스트도 입장할 수 있다.



▶칠드런스 뮤지엄

1회 방문: \$56

연간 멤버십: \$150

형형색색 작품들의 전시와 신나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시선을 송두리째 빼앗는 칠드런스 뮤지엄(Children's Museum)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일년에 세 번 이상만 방문해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멤버십 구매 시 기념품 가게에서 10% 할인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뉴잉글랜드 아쿠아리움

1회 방문: \$90

연간 멤버십: \$149

항구에 위치한 뉴잉글랜드 아쿠아리움(New England Aquarium)에서는 펭귄과 거북이, 물개를 비롯한 각종 바다 생물을 구경할 수 있다. 멤

버십 구매 시 가족관계에 상관없이 4명이 방문할 수 있으며 아이맥스 입장권이 두 장 주어진다. 이외에도 크루즈를 타고 고래를 구경할 수 있는 웨일 워치(Whale Watch) 패스도 약 \$8 할인받을 수 있다.



▶식스 플래그

1회 방문: 1인당 \$59.99

연간 멤버십: 1인당 \$85(월 \$7.08)



짜릿한 놀이기구와 시원한 워터파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식스 플래그(Six Flags)의 멤버십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기본 입장료는 1인당 \$59.99(인터넷 구입 시 약간의 할인 적용)이지만 연간 멤버십을 구매할 경우 월 \$7.08에 무제한 입장을 즐길 수 있다. 뉴저지에 위치한 식스 플래그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지정된 날에는 친구 한 명을 무료로 데리고 갈 수도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niboston.net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지난 13일 개최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졸업식에서 엄성준 주 보스턴 총영사가 축사를 전하고 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졸업식 및 종강식 성황

학예발표회에 학부모 박수갈채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장 남일)가 지난 13일 졸업식과 종강식을 겸한 개교 40주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는 1부의 졸업식과 2부의 학예발표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1부 순서에 앞서 사물놀이팀과 금도끼/은도끼반, 흥부/놀부반의 축하무대가 펼쳐졌고 동요대회 대상 수상자인 이혜린, 최재민, 최재윤 어린이의 애국가 및 미국 국가 제창이 이어졌다.

기념식에 참가한 엄성준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졸업이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한 면은 선물이지만 다른 면은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역사 지식을 더욱 키워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김경원 보스턴 한인회장과 이경태 시민협회 회장, 이현희 과기협 차기회장이 축사를 전하며 한국학교

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준비한 후원금 전달식이 개최됐다.

졸업장 및 장학금 수여식을 통해 이린(총영사상), 최지현, 이주은(학교장상) 김희은(이사장상), 이재현(보스턴한인회장상), 장원재(NE시민협회장상), 이하준(NE과기협회장상), 신한별(학부모회장상) 학생이 단체장상을 수상했으며 권민지, 김정완, 서윤진, 최지이 졸업생이 장학금을 수여받았다.

학생 시상식에 이어 진행된 교사 시상식에서는 도널드 커피스 교사가 23년, 김영순, 이현경, 주민정 교사가 15년 이상, 박원경, 유미선, 이영미 교사가 10년 이상, 김소희, 김희현 교사 등 16명의 교사가 5년 이상 근속표창을 받았다.

각종 시상식이 진행된 1부 순서는 사군자반의 ‘6.25 참전국에 보내는 감사의 편지’ 낭독과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교사들의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엔’ 합창으로 마무리되었다.

종강식의 꽃으로 알려진 2부의 학예발표회에 앞서 우리말 평가상, 출

석상, 과정수료증 수여식과 학부모회 후원금 전달식이 이어졌다.

학예발표회에는 백제1반의 인형극과 더불어 각 과정의 동시 및 노래와 율동발표가 이어졌고 대견한 자녀들의 모습에 학부모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관련 행사 사진과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엄성준 주 보스턴 총영사를 비롯해 김경원 보스턴 한인회장, 시민협회 이경태 회장, 민주평통 김성혁 회장, 과기협 이현희 차기회장, 박신영 NE한국학교협의회 이사장, 오인식 나의꿈국제재단 이사, 이광석 교육영사, 황성미 한국학교 4대 교장, 최홍균 박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여름방학을 맞이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의 개학은 오는 9월 12일(신입생)과 19일(전교생)이다. 등록 신청 및 교사 지원은 학교 홈페이지(www.ksneusa.org) 또는 남일 교장(ksneusa@verizon.net 또는 508-523-5389)에게 문의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북부보스턴 한국학교 졸업식 및 종강식이 지난 13일 개최됐다

북부보스턴 한국학교 졸업식 및 종강식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지난 13일 북부보스턴 한국학교(교장 장인숙) 졸업식 및 종강식이 많은 학생과 학부모, 교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장인숙 교장의 인사말과 정대훈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졸업식에서는 12년간 한국학교를 다닌 세 명의 학생에게 졸업장이 수여되었다.

세 명의 졸업생들은 그동안 배우고 익힌 한국어로 송사를 전했다. 한국학교에서의 경험과 소감을 또박또박 이야기할 때에는 많은 참석자들이 감동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이어 개근상을 포함한 각종 시상식이 진행되었으며 교내행사 때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상장과 트로피, 상금이 수여되었다.

특히 전교생 중 단 1명에게 주어지는 한국학교 교장상은 윤태산 학생에게 돌아갔다. 교장상은 일년 동안 교장선생님과 교사들의 심사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이는 많은 재학생들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었다. 한편,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은 마음에 대학을 졸업한 후 다시 한국학교로 돌아온 이의진 학생은 본인이 5살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한국학교 교육을 받았던 경험과 왜 한국학교에 다시 다니고 있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이의진 학생의 발표는 많은 후배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다.

이어 신혜현 학생의 지도로 학생들의 태권도 시범이 진행되었고 많은 학생들과 교사의 아쉬움 속에 졸업식이 마무리되었다.

장인숙 교장은 “한결같이 북부보스턴 한국학교를 관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후원해주신 김용환 목사 외 많은 후원자분들과 2세들에게 우리뿌리를 튼튼하게 자리잡아 줄 수 있도록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가을학기 개강이나 북부보스턴 한국학교에 관한 기타 문의는 장인숙 교장 (978-390-9880 또는 insuk121@comcast.net)으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전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전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전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고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민/형사 소송
 이민법

전화: (781)712-1706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한국학교협의회 정기 이사회 및 총회 개최

뉴잉글랜드 전역에서
11개 한국학교 대표 참석
한순용 현 회장 연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회장 한순용, 이사장 박신영)가 지난 13일 토요일 렉싱턴 소재 성요한 한국학교에서 총회를 겸한 정기 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이사회는 뉴잉글랜드, 로드아일랜드, 밀알, 메인, 보스턴 천주교, 북부보스턴, 성요한, 퀴지, 우리뿌리, 우스터, 애머스트 이상 11개 한국학교의 교장 및 선출이사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신영 이사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이사회에서는 각 학교의 대표 및 이사들의 소개와 감사, 재무, 사업 보고가 이어졌으며 재임 이사, 신임 회칙



한순용 재미한국학교 NE 지역협의회 회장

위원, 회칙개정 및 지명위원 선출 인준이 함께 진행됐다.

아울러 신임 회장과 부회장 투표가 실시된 이날 총회에서는 한순용 현 회장이 2년 임기를 연임하게 되었고 신영옥 현 부회장과 김현주 밀알 한국학교 교장이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한순용 회장은 “협의회 전 회원교의 배려와 협조로 협의회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당부와 함께 “각 회원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협의

회 발전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오는 8월 1일부터 2017년까지 2년 임기를 연임하게 되는 한순용 회장은 북부보스턴 한국학교에서 교사와 교장을 역임했다. 이어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 지역협의회에서 총무, 부회장을 거쳐 지난 2년간 협의회 회장으로 봉사해왔으며 대통령 표창장, 교육과 학부 장관 감사장, 협의회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협의회 행사로는 오는 7월 16일부터 뉴저지에서 개최되는 제 33차 한국학 국제교육학술대회 참가와 8월로 예정된 2015년도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 교사연수회가 있다.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 또는 가입 문의는 홈페이지(www.naks-ne.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렉싱턴 소재 성요한 한국학교가 오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무료 여름한글캠프를 주최한다

성요한 한국학교, 무료 여름한글캠프

초급 문법 및 회화반 개설
참가학생수 10명 이내 제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성요한 한국학교(교장 이현경)가 무료 여름 한글캠프 프로그램을 개설해 오는 24일까지 참가 학생을 모집한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한글캠프는 정교사의 지도 아래 오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매일 한 시간씩 진행된다.

이현경 성요한 한국학교 교장은 “많은 학생들이 스포츠나 음악 등 다양한 과외활동으로 인해 토요일에 한국학교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여름방학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었다”며 개설 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학교 정기수업을 받기 어려운 상황의 학생이나 가을 학기를 미리 준비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며 회화 초급반(오전 9시~10시)과 문법 초급반(오후 4시30분~5시30분)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또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위해 10명의 자리 제한이 있으며 첫 날 간단한 시험이 치뤄질 예정이다.

올해 첫 회로 실시되는 여름 한글 캠프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매년 여름 열리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으며 내년에는 보다 다양한 한국문화 수업이 한글 수업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현경 교장은 “(여름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서 자라나는 2,3세 자녀들이나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 조금이나마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접할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요한 한국학교의 무료 한글 여름캠프에 관심있는 사람은 오는 24일 수요일까지 이현경 교장(sjks.principal@gmail.com) 또는 박신영 교육부장(shinyoung2011@gmail.com)에게 문의해 지원원서를 받을 수 있다.

성요한 한국학교는 렉싱턴 소재 성요한교회의 부속기관으로 등록금 외에도 교회와 보스턴 총영사관의 보조를 받아 운영된다.

dyoo9146@bostonkorea.com

이재옥 세라믹 아티스트 전시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세라믹 아티스트 이재옥 씨의 작품이 다양한 주제로 열리는 총 세 개의 전시회를 통해 한인들에게 소개된다.

이재옥 씨가 참가하는 전시회로는 ‘통역의 전통(Tradition of Translation)’과 ‘색의 부재(Absence of Color)’, ‘지역 화가 공모전(Off the wall and Community of Artists)’이 있다.

특히 올해 이재옥 씨가 준비하는 전시회 중 가장 크게 열리는 ‘통역의 전통’에서는 돌벽수(Guardian)를 비롯해 한국의 정서를 깊게 느낄 수 있는 17개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한편, 전시회 ‘색의 부재’는 흑백의 작품만이 전시될 예정으로 이재옥

씨의 작품으로는 한지와 먹을 사용한 작품이 있다. 이재옥 씨 외에도 총 다섯 명의 미국인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며 전시회 측은 관객도 흰색 또는 검은 색 의상을 입을 것을 부탁해 더욱 흥미로운 전시회가 열릴 전망이다.

전시회 일정

▶통역의 전통

일시: 2015년 6월 11일~7월 11일(갤러리 토크: 6월 27일 오후 4시)

장소: 파운틴 스트리트 파인아트(59 Fountain St, Framingham, MA 01702)

▶색의 부재

일시: 2015년 6월 2일~7월 18일(리셉션: 6월 20일 오후 7시)

장소: 갤러리 세븐(7 Nason St,



Maynard, MA 01754)

▶지역작가 공모전

일시: 2015년 6월 7일~8월 2일
장소: 댄포드 미술관(123 Union Avenue, Framingham, MA 01702)

dyoo9146@bostonkorea.com

**오바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콘도,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8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전 MIT강사, 영화감독 은행강도 저질러

은행원에게 현금 강탈하는 장면 자신이 카메라에 직접 담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욕에서 은행강도를 저지르고 이 장면을 자신의 필름에 담았던 유명한 야방가드 영화감독이 자전 MIT 강사 조셉 기본스가 다음달 뉴욕 법정에 서게 된다.

보스톤 글로브에 따르면 기본스는 지난해 마지막 날 뉴욕 맨하튼 동남쪽 소재 캐피탈 원 은행 지점에 들어가 은행원에게 돈을 원한다는 쪽지를 건넨 후 핑크 및 은색의 비디오 카메라로 은행원이 \$1002을 건네주는 장면을 촬영했다.

기본스는 이번 주 3등급 강도협외에 대해 유죄시인을 했으며 자신의 강도행위 모습을 자신의 향후 영화에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스와 같은 감옥에 수감된 수감동료 케일란 웨라드 씨는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영화를 만들기 위한 연구행위의 하나를 한 것이다. 예술이지 범죄가 아니다” 라고 기본스를 변호했다. 기본스는 뉴욕포스트에 자신의 강도행위가 영화를 위한 것이 맞지만 돈이 절실히 필요했고 머물 곳도 필요했었다고 강도의 동기가 돈에 있었음도 인정했다.

검찰은 기본스에게 3년 형을 구형했지만 로라 워드 판사는 유죄시인의 경우 1년 형으로 감형해줄 것을 제안했다고 뉴욕 포스트는 밝혔다. 기본스(61)는 MIT 예술, 문화 그리고 테크놀로지 프로그램에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강의 맡았으며 전위적인 행위예술 영화를 찍어 왔었다.

보스톤 글로브와 인터뷰한 빈센트 그라이너 빙햄튼 대학 교수 및 영화감독은 “그가 맡은 역이 실제로 그였는지 아니면 영화의 한 장면인지 결코 구분할 수 없다” 고 말하고 “그는 그동안 현실과 환상의 경계 속에서 영화를 만들어 왔다” 고 지적했다.



조셉 기본스 영화감독이 지난해 12월 31일 맨하탄의 캐피탈 원 본점에서 돈을 챙겨 놓고 있다

기본스는 지난 1977년 한 작가의 그림을 오를랜드 뮤지엄에서 훔쳐 나와 ‘해방’ 시켰다가 그림은 돌려주고 예술해방전선 행동 그룹의 활동가들을 놀리기 위한 협상의 몸값으로 그림 액자를 보관하는 장난을 치기도 했다.

지난 2002년 자신의 영화 “소시오패스의 고백”에서는 상품 절도, 헤로인 투입, 그의 집행유해 담당관과의 대화, 심리학자의 진단 등을 담은 영화를 찍기도 했다.

실형적 영화로 인해 그는 2001년 구겐하임 재단의 펠로우십을 받기도 했고 파리와 보스톤의 현대 예술 박물관에 그의 작품이 전시되기도 했다.

기본스는 링크드인(Linkedin) 페이지에 자신의 직업을 비디오 편집자/상담가로 소개했으며 지난해 11월 로드아일랜드에서 \$3000을 훔치는 자신의 모습을 필름에 담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본스의 행위에 대해 일부 동료들은 도를 넘었다며 문제를 지적했고 일부에서는 그가 석방된 후 영화를 전시하겠다는 등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기본스에 대한 최종 판결은 오는 7월 13일 맨하튼 대법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hsb@bostonkorea.com



탐 브래디 샐럼 주립대 1시간 강연료 17만불 받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지난달 샐럼 주립대 강연에서 디플릿게이트에 대해 공격한 답변을 내놨던 탐 브래디가 이날 한 시간 강연료로 17만불을 받은 것이 알려져 화제다.

보스톤 글로브는 17일 웰스 리포트로 인해 슈퍼볼 4회 우승 쿼터백이란 플래티넘 이미지에 커다란 타격을 입었음에도 발표 이후 침묵으로 일관해왔던 탐 브래디가 단 한번 웰스 리포트 발표 바로 다음날 샐럼 주립대 강연에 강사로 섰던 것은 최소한 재정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비꼬았다.

샐럼 주립대는 16일 보스톤 글로브의 거듭된 공공정보 공개 요청에 못 이겨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츠의 스타 쿼터백 탐 브래디가 연례 명사강연 시리즈의 연사로 참여하면서 17만불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샐럼 주립대 대변인 캐런 캐디는 브래디의 강연료는 티켓판매 수익은 물론 후원금으로 마련됐으며 결코 주정부의 자금은 이 강연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브래디 초청강연 시리즈 티켓은 매진이었으며 이날 청중들은 압도적으로 브래디 팬들로 구성됐다. 브래디는 저녁 러시아워 교통 혼잡을 예상해 이날 강연에 헬기를 타고 도착했지만 예정시간보다 30분 이상 늦었다고 글로브는 보도했다.

브래디는 강연 전날 웰스리포트가 발표된

것과 관련 질문을 받자 “나는 지금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 이제 겨우 30시간이 지났을 뿐이며 나는 아직도 그의 발표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 준비가 됐을 때 어떻게 느끼는지 말하도록 하겠다” 는 말로만 유사 질문에 답을 되풀이했다.

지난 시즌 브래디의 연봉은 7백만불이었으며 광고 모델 활동 등을 통해 수백만불을 벌어들였다. 그의 강연료도 슈퍼볼 4회 우승 후 경총 뛰었다. 이전 강연료는 7만5천-10만불 정도였다.

대학 강연에서 이처럼 많은 강연료를 받는 것은 브래디 뿐만이 아니다. 스타 쿼터백 패이튼 매닝(덴버 브랑코스)은 오클라호마 주립대 초청 강연에서 10만 5천불을 받기도 했다.

매사추세츠의 일부 공립 대학들은 지난 졸업시즌 동안 연사들에게 2만5천에서 3만불에 달하는 강연료를 지불해 비난을 받았었다. 더구나 웨스트필드 주립대학 이반 도벨 총장은 두 차례의 명사 초청강연을 개최하면서 50만불 이상을 사용해 비난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서픽대학 존 누치 총장은 “학교들이 돈을 학생들이 아닌 명사 초청 강연에 사용하는 것은 신중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고 비난기도 했다.

샐럼 주립대학의 주내 거주 학생들에 대한 1년 학비는 \$9,246이었다.

hsb@bostonkorea.com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은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
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하버드 역할 불투명

보스톤 2024,
하버드와 충분한 논의 안 거쳐

시설 공유 축소,
파트너십 관계 약화 예견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2024년 하계 올림픽을 보스톤에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올림픽 유치를 위한 하버드 대학교의 역할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보스톤 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단체인 보스톤 2024가 하버드 대학교와 파트너십을 맺을 때만 하더라도 하버드 대학교의 역할은 중요해 보였다.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는 하버드 대학교의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경기장 등의 우수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스톤 2024가 미국 올림픽 위원회에 접수한 올림픽 유치 신청서에는 하버드 대학교가 올림픽 경기 중 최소한 5종목의 경기를 교내 경기장에서 치를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는 보스톤에서 올림픽이 개최될 경우 기존 시설을 공유하기로 한 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교는 보스톤 2024가 접수한 신청서에서 하버드 대

학교가 5종목의 경기를 유치할 것이라고 적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버드 대학교의 제프 닐 대변인은 "우리는 올림픽 유치 신청서가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까지 서류를 볼 수 없었다"며 "교내 시설의 잠재적인 사용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한 적이 없고 참여 의사를 밝힌 적도 없다"고 말했다.

보스톤 올림픽 유치 신청서에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테니스, 수중 폴로, 필드 하키, 펜싱, 수영과 다이빙 등의 경기가 열릴 것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리기로 한 종목 중에 몇 가지나 남아 있을지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다. 보스톤 2024의 올림픽 유치 제안서의 새로운 버전은 이번 달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미 보스톤 2024는 테니스 경기를 하버드가 아닌 도체스터에 위치한 하람비 파크에서 하기로 지난 주에 결정했다. 텅스 대학은 수영과 다이빙의 경기를 교내 캠퍼스에서 유치하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보스톤 2024와 하버드 대학교의 파트너십 관계도 초기에 알려진 것처럼 튼튼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케이티 랩 하버드 대학교 수석 부총장은 보스톤 2024의 주요 리더십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랩 부총장은 조용히 보스톤 2024에서 직위를 내려놓



하버드 스타디움 같은 하버드 대학교의 운동 시설이 올림픽 경기에서 사용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고 탈퇴했다. 또한 드류 파우스트 하버드 대학교 총장은 올림픽 유치를 위한 자금 조성에 하버드 대학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보스톤 2024는 올림픽 유치를 위해 보스톤 인근에 위치한 대학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최신 설비의 운동 시설과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자원 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는 젊은 대학생들, 명문 대학교가 갖고 있는 지명도를 이용한 기금 모금 행사 등이 보스톤 올림픽 유치 신청서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보스톤 2024는 하버드와 시설 이용 등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교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스톤 올림픽 유치 신청서에 기입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jsi@bostonkorea.com



기록적인 폭설 덕분에 매사추세츠 메이플 시럽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MA주 메이플 시럽 생산량 역대 최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에서 2015 시즌 동안 7만 5천 갤런의 메이플 시럽이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에 비해 생산량이 23% 증가한 것이며, 매사추세츠 역사상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메이플 시럽이 생산된 것이다.

매사추세츠 메이플 생산자 연합에 따르면 올해 들어 메이플 시럽 생산량이 급등했다. 2013년에는 메이플 시럽 생산량이 6만 3천 갤런이었고, 작년에는 6만 1천 갤런이었다.

메이플 생산자 연합의 윈튼 핏코프는 "길고 추운 겨울 덕분에 올해 메이플 시럽을 수확할 수 있는 이상적인 온도가 형성되었다"며 "날씨 때문에 걱정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오히려 수확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었다"고 말했다.

전미 농업 통계 서비스에 따르면, 2015년에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메이플 시럽 생산량이 증가했다. 미국 전체 평균은 생산량이 6% 증가하였다. 매사추세츠 주는 메이플 시럽 생산량이 23% 증가하여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메이플 시럽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매사추세츠 주의 설당 시장도 올해 들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메이플 시럽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주는 버몬트 주로, 버몬트 주는 올해 140만 갤런의 메이플 시럽을 생산했다. 버몬트 주가 생산하는 메이플 시럽은 미국 전체 생산량의 40%에 달한다. 매사추세츠는 메이플 시럽 생산량이 미국에서 9번째로 많은 주다.

jsi@bostonkorea.com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하루 2번, 면역력을 지키는 습관

- 기력회복
- 항암효과
- 면역력 증진
- 혈액순환 개선
- 당뇨 합병증 예방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간 및 신장 기능 개선
- 기억력 개선

홍삼에도 격이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위해 최선을 드세요.

정관장 홍삼의 엄격한 제품 관리 기준은 의약품 제조도 가능한 수준으로 한국, 일본 GMP 및 HACCP 인증을 획득할 정도로 품질면에서 우수합니다.

6년근 홍삼의 진한 피부과학 동인비

동인비진 크림
DONGINBI Red Ginseng Power Repair Cream / Balm

전화주문 서비스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FedEx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781-238-03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617.547.0212
Mixitrestaurant.com

FREE SPICY TUNA ROLL with purchase of any sushi \$30 or more

WE DELIVER lunch and dinner

Mix-it Sushi Noodle Grill | 1678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8

보스톤코리아 KOREAN GUIDE & MAP

보스톤 가이드 앤 맵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이 곧 출간됩니다. 이 가이드 앤 맵은 미국 및 중국 학생,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등에 널리 배포될 예정입니다.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관

3만부를 지난 2월 말부터 3월부터 3개월에 걸친 책 배부되는 가이드 앤 맵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낀게 느껴드릴 것입니다. 보스톤코리아가 후원하는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의 배포 업무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 배포

이제는 더 많은 미국, 중국, 아시아 고객들을 위한 것으로 준비되어 갈 것입니다. 지금 책값이 내린 계층은 꼭우려 것입니다.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미국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관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 배포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미 공화 경선...후보만 11명 난립, 치열한 경쟁 예고

(워싱턴 로이터=뉴스1) 정이나 기자 = 2016년 공화당 유력 대선후보인 켈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15일 공식 출사표를 던지면서 공화당 경선에도 본격 막이 올랐다.

현재까지 11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공화당 경선은 어느때보다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 후보들의 면면을 간추렸다. <켈 부시

부시(62)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15일 (현지시간) 고향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카운티에서 "역동적인 나라의 정적인 수도 워싱턴 문화를 뜯어고치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제41대 대통령인 조지 H.W. 부시의 아들이자 43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W. 부시의 동생이다.

부시 전 주지사는 그러나 출마 선언도 전에 형 부시의 외교정책과 이라크 침공을 둘러싼 말실수로 인해 일찌감치 반대 진영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민개혁을 통해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데 있어 다른 공화당 인사들보다 적극적이어서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올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보수 세력에는 비교적 낮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벤 카슨
저명한 신경외과 의사 출신인 카슨(63)은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티파티'의 지지를 받는다.

디트로이트 빈민가에서 태어나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으며 세계 최초로 머리가 붙은 삼쌍둥이 분리 수술에 성공하며 신경외과의로 이름을 날렸다.

현재까지 민주·공화 양당에서 대선 입후보를 선언한 유일한 흑인이다.

<테드 크루즈
크루즈(44·텍사스) 상원의원은 3월 23일 가장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카슨과 마찬가지로 티파티의 지지를 받고 있다. 쿠바 이민자 가정 출신이지만 이민개혁에 있어 강경 보수 노선을 고수한다.

크루즈 의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내 최대 업적으로 여기는 건강 보험개혁법 '오바마케어'를 비롯해 현 정부의 각종 정책에 반기를 들며 대립각을 세웠다. 미국내 기독교 유권자들의 지지를 적극 호소하고 있다.

<칼리 피오리나
글로벌 IT업계의 여제로 불리는 칼리 피오리나(60) 전 휴렛팩커드(HP) 최고경영자(CEO)는 유일한 여성후보로 민주당의 유력 여성 대권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도전장을 냈다.

1999년 HP CEO로 발탁된 피오리나는 회사의 대대적 개혁을 추진하며 실리콘 밸리의 여제로 불렸지만 실적 부진과 주가 폭락으로 6년만인 2005년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2008년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캠프에서 경제 정책 고문직을 맡기도 했다.

지난 2010년에는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의원직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내 강경보수파인 그레이엄(59·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강력하게 비난했으며 국무장관이던 민주당 대선주자 힐러리 클린턴의 '저격수'



현재까지 11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공화당 경선은 어느때보다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왼쪽부터 켈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벤 카슨 신경외과 의사,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민 개혁이나 기후 정책에 있어서는 중도 우파 성향을 띤다.

<마이크 허커비
허커비(59) 전 아칸소 주지사는 2008년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승리해 공화당 경선에 출마했지만 매케인 후보에게 패배했다.

1996~2007년 제44대 아칸소 주지사를 지냈으며 목사 출신으로 미국 내 기독교도 사이에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1월 진행하던 폭스뉴스 '허커비'에서 하차하며 2016년 대선 출마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조지 파타키
파타키(69) 전 뉴욕 주지사는 민주당 텃밭인 뉴욕에서 공화당 소속 주지사(1995~2006)를 3차례나 역임했다.

2006년 이후 공직을 떠나있어 인지도가 비교적 낮으며 중도 보수라는 평을 받고 있다.

<랜드 폴
폴(52·켄터키) 상원의원은 2008년, 2012년 대선 당시 공화당 경선에 출마한 아버지 론 폴(텍사스) 전 하원의원의 뒤를 이어 2016년 대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라고도 불리는 폴 의원은 정통 보수로의 회귀를 주장한다. 당내 티파티 세력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릭 페리
페리(65) 전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2000년부터 올해 1월까지 주지사직을 수행한 역대 최장기 텍사스 주지사다.

지난 2012년에도 공화당 경선에 출마했지만 유세 연설 도중 선거일과 투표권을 갖는 나이를 잘못 말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등 곤혹을 치른 후 경선에서 사퇴했다.

<마르코 루비오
쿠바 이민자 출신 부모를 둔 루비오(44·플로리다) 상원의원은 자신의 출마를 과거의 선택에서 벗어난 '세대'의 선택(generational choice)이라고 묘사한다.

자신의 성장배경을 강조하며 중산층 미국인을 대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릭 샌토럼
미국 기독교도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샌토럼(57·펜실베이니아) 전 상원의원은 2012년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승리했지만 친기업 성향의 미트 롬니 후보에 밀려 대통령 후보에 낙선했다.

샌토럼 전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중산층 경제 회복을 약속했다.

이밖에 공식 선언은 없었지만 출마가 유력시되는 공화당 인사로는 크리스 크리스티(52) 뉴저지 주지사와 바비 진달(43) 루이지애나 주지사,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68), 스타 워커(47) 위스콘신 주지사 등이 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공화당 최대 잠룡 가운데 한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지난해 크리스티 주지사의 측근들이 크리스티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주당 소속 마크 소콜리치 포트리(Fort Lee) 시장을 골탕먹이기 위해 고의로 교통체증을 유발한 이른바 '브리지게이트(Bridgegate)'에 휘말리며 위기를 맞았다.

진달 주지사는 그간 대선 출마 의사를 공공연히 밝혀왔다. 오는 24일 출마 여부를 공식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역시 앞서 대선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유명 정치 고문들을 고용했으며 16일 '중대발표'를 할 예정이다.

워커 주지사는 당내 강경 보수파로부터 부시 전 주지사의 '대안'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lchung@news1.kr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미국 전체 New Star Realty 금탑수상**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니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턴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과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과 각 지역에서의 각종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창업중이며 불경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자리에 집과 사업을 매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e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55
Tel. (517) 869-4989

EXCLUSIVE : ALLSTON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방 4개 화장실 1, 1,330 sqft
Harvard Ave 전철역, 미림, 한마루, 서울 설령탕, 한진택배 걸어서 1-2분 거리
내년 9월까지 학생들이 계약되어 있음.
현재 올스턴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EXCLUSIVE : ACTON

For Sale: \$ 229,000 3 BEDS, 2.5 BATHS, 1,594 SQ FT
학교 좋은 ACTON 지역의 타운 하우스 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10만점에 10점 일 정도로 학교가 좋습니다. 보스턴 다운타운에서 서쪽으로 약 19.5 마일입니다.
더 자세한 집 정보와 동영상은 아래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newstargina/209766588

가족의 정착,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978.866.324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ID: jusrangnim

연준 "미 경제 완만한 확장"…기준금리는 동결

합리적 확산 표현 유지...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
1.8~2.0%로 하향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17일 "미국의 경제활동이 완만하게 확장돼 왔다"고 말해 현재 제로(0) 수준인 기준금리의 연내 인상 가능성을 키웠다.

연준은 전날부터 이틀 동안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종전과 같은 0~0.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미국 경제의 '확장'과 함께 고용시장이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실업률이 안정 상태로 유지되면서 일자리 증가가 개선됐다"고 진단한 연준은 "노동 자원의 유휴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서도 연준은 "노동시장이 더 개선되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이 주기적으로 2% 목표치를 향해 근접한다는 합리적 확산(reasonably confident)이 설 때 연방기금금리 목표치 인상이 적절하다고 기대한다"는 표현을 유지했다.

반면,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유추할 만한 언급이나, 다음번 회의 때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통화정책 시행 계획에 관한 내용을 이번 성명에 담지 않았다.

연준은 별도로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올해의 국내총생산(GDP) 예상 성장률을 기존의 2.3~2.7%에서 1.8~2.0%로 낮췄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재닛 옐런 의장이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의 예상 성장률은 2.3~2.7%에서 2.4~2.7%로 예상 범위의 하단을 조금 높였고, 2017년의 예상 성장률은 2.0~2.4%에서 2.1~2.5%로 상단과 하단을 모두 상향 조정했다.

17명의 FOMC 회의 참가자들 중 금리 인상 시점으로 올해를 지목한 사람은 15명, 내년을 목한 사람은 2명으로 지난 3월 정례회의 때와 같았다.

연말까지의 적정 금리수준에 대한 FOMC 참가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점도표'의 분포는 지난 3월 회의 때 0~0.25% 구간에서 1.5~1.75% 구간까지 걸쳐 있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가장 높은 금리를 예상한 사람도 0.75~1%에 그쳤다.

이는 만약 올해 안에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여러 번 연속으로 올리거나 큰 폭으로 올릴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성명 발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가 올해 초에 소프트 패치를 겪었다"며 올해 초에 발생했던 미국 경제의 부진이 "일시적 요인"이었다고 말했다

다. 지난달 "올해 안 어느 시점에는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높이기 위한 초기 조치에 나서고 통화정책의 정상화 절차를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던 옐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연내 금리인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분명히 대부분의 (FOMC 회의) 참가자들은 올해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옐런 의장은 그러나 금리 인상 시점과 관련된 만한 내용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미국 경제에서 "진전이 분명히 이뤄졌지만 여지는 남아 있다"고 말했고, 질의응답 도중에는 "실업률이 얼마까지 떨어지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도 될 만큼 노동시장이 개선됐다는 식의 단순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은 틀린 일일 것"이라고도 말했다.

연준은 이날 10명의 FOMC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음 FOMC 정례회의는 다음 달 28일부터 이틀동안 열린다.

smile@yna.co.kr



소형차 부문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현대 엑센트 2015

"한국차 품질 최고...일본차는 평균 이하"

(로스앤젤레스·뉴욕=연합뉴스) 김중우 박성제 특파원 = 기아자동차가 미국 소비자가 꼽은 최고 품질의 신차 브랜드로 선정됐다.

기아차 미국판매법인인 17일 미국 최대 시장조사기관인 JD파워&어소시에이츠(JDPA)가 최근 신차를 구매할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일반 브랜드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반 브랜드 3위, 전체 브랜드 중 6위를 기록했던 기아차는 올해 조사에서 20포인트나 개선된 86점을 기록했다.

점수는 자동차 100대당 몇개의 불만이 나왔느냐로 책정된다. 예컨대 기아차가 기록한 86점은 자동차 100대당 86개의 불만(86PP100)이 지적됐다는 얘기다.

기아차는 100점을 넘은 도요타와 렉서스, 혼다, 아우디 등을 제치고 일반 브랜드에서 1위에 올랐다.

럭셔리 브랜드를 포함한 전체 브랜드 33개 중에서는 포르세(80)가 1위, 기아차(86)가 2위를 각각 차지했다. 이어 재규어(93)가 3위, 현대차(95)가 4위였다.

일본 자동차 중에서는 닛산의 인피니티(97)가 5위, 도요타의 렉서스(104)가 9위에 올랐다.

차종별로 보면 소형차 부문에서는 현대 엑센트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소형 SUV와 중형 SUV에서도 한국 브랜드인 현대 투싼과 기아 쏘렌토가 각각 정상을 차지했다.

올해 조사에서 유럽차는 113 PP100을 기록해 처음으로 일본(114)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

중형형급은 닛산 센트라, 중형급은 쉐보레 말리부, 중형 프리미엄급은 BMW 5-시리즈, 풀사이즈급은 크라이슬러 300이 각각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JDPA의 초기품질 지수는 엔진·트랜스미션 등 8개 부문 233개의 개별항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으로 미국에서 브랜드 충성도와 재구매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료다.

올해 JDPA의 신차품질지수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차를 구매해 90일 이상을 보유한 2만2천69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J.D.파워의 자동차 품질담당 부회장인 레니 스테판스는 "이번 결과는 품질 지형의 변화를 보여준다"면서 "그동안 '황금기준'으로 여겨온 일본차의 품질 향상속도가 더딘 사이 한국차의 품질이 빠르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jongwoo@yna.co.kr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Wellesley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들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최지희 헤어 (Bliss Image)
휴일없는 미용실

여름의산뜻함을 찾아 드립니다

- 남녀헤어
- 피부관리
- 네일
- 제모
- 속눈썹 연장
- 바디 마사지
- 영구화장
- 속눈썹 지도해드립니다

11A Corinth St. Roslindal MA 02131
SHOP: 617.323.0023
CELL: 617.818.5596

Business Hours:
Mon-Sat: 9am - 7pm
Sun: 9am - 6pm
미용사 구함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In Lowell

중은 치과
중은 치아

WE MAKE SMILE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메르스 비상... 풀리지 않는 의문 3가지

(서울=경향신문) 조형국, 최희진 기자 = ■ 꼬리 길어지는 '2차 유행'

어제 확진 8명 중 5명 삼성병원서 감염... 잠복기 논란도 여전

삼성서울병원에서 지난달 27~29일 슈퍼전파자(14번째 환자)에게 노출된 감염 위험자들의 잠복기는 지난 12일 끝났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1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환자 3명과 보호자 1명이 새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당초 알려진 최장 14일보다 긴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 상황이다.

권준욱 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오늘 4명 모두 증상 발현일은 잠복기 내에 있다"며 "검사 의뢰와 확진이 지연된 사례일 뿐 '잠복기 최장 14일'에 문제를 제기하는 건 현재 상태에선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대책본부 자료를 보면 확진자 4명 중 155번째 환자(42·여)는 지난 9일 발열이 있어 유전자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으로 나왔다가 12일 재검사서 양성으로 판정됐다. 156번째 환자(66·남)도 발열은 지난 2일 시작됐다. 하지만 5일 삼성서울병원 유전자 검사서 양성, 6일 국립보건연구원 검사서 음성, 10일 재검사서 다시 양성 나왔다. 유전자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검체가 밀려 있는 데다 결과도 음성·양성이 오락가락한 탓에 최종 확진과 공개가 지연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15일 확진된 대구 공무원(52·154번째 환자)과 14일 확진된 146번째 환자(55)는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했으나 증상은 접촉한 지 17일 만인 13일 나타났다. '최장 14일' 이론에 예외가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미공에 빠진 감염경로
평택 경찰 등 역학조사에도 접촉 경위·감염 방식 확인 안돼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감염 의심을 받고 있는 평택 경찰(35·119번째 환자)과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 2명(115·141번째 환자)의 감염경로는 미공에 빠져 있다. 대책본부는 지난달 31일 평택 경찰이 평택박애병원 응급실에서 52번째 환자(54)를 접촉한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에 착수했으나 평택 경찰이 52번째 환자보다 17분 앞서 병원을 떠난 것으로 확인돼 감염 연결고리가 불투명해졌다. 대책본부는 환자 면접조사를 통해 감염경로를 파악하려 했으나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 확진 일주일이 넘도록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17일 대책본부 관계자는 "면접조사 외 간접 방법으로 환자 동선, 경유 병원과 시기 등을 파악하고 있으나 실마리가 전혀 안 나온다. 환자 상태가 나아진 뒤 면접조사를 해봐야 가닥이 잡힐 것 같다"고 했다.

14번째 환자(35)로부터 시작된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확진자 수가 80명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휴업했다 15일 수업을 재개한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하교하고 있다

달했지만 비말 감염, 2m 내 접촉 외 구체적인 감염 방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히 외래환자인 115번째 환자(77), 외래환자와 동행한 141번째 환자(42)가 14번째 환자와 접촉하게 된 경위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대책본부는 응급실 인근 화장실이나 병원 카페 등 14번째 환자가 돌아다니며 비말을 남긴 곳을 접촉장소로 추정하고 있으나, 화장실 주변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인정됐고 구체적인 역학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 격리 6500명... 관리 되나 하루 새 922명 늘어... 당국 "행정

력 총동원" 불구 사각 우려
이번주 들어 하루 300여명씩 늘어난 일일 격리자는 17일 922명이 늘어 6508명이 됐다.

대책본부는 148번째 환자(39·의료진)가 확진 판정된 건양대병원과 143번째 환자(31)가 입원했던 부산 좋은강안병원에서 격리 대상자가 늘어난 탓이라고 설명했다. 17일 현재 누적된 격리해제자가 3951명인 점을 고려하면 1만459명이 격리를 경험한 셈이다.

메르스 발병 후에도 지난 2~10일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한 환자 침대 이송요원도 동선과 접촉자를 예의주시 하는 특급 관찰자이다. 하지만 이송요

원과의 직간접 접촉이 추정돼 격리된 사람이 급증했음에도, 이 기간 병원 응급실을 다녀간 방문자 중엔 아직 정부의 관리명단에 오르지 못한 사람도 있다. 권준욱 반장은 "환자·의료진 등 480여명이 (이송요원) 관리명단에 포함돼 있고 어제 (환자들에게) 밤새 유선 연락해서 보호자·동행객 등 70명을 파악했다"며 "앞으로 더 추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격리인해 가족 중 아동·노인·장애인을 돌보지 못하는 격리 대상자에게 급식·가사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situation@kyunghyang.com

165명중 23명 사망 메르스 치명률 13.9%... 퇴원 총 24명

격리자 221명 늘어 6729명... 격리 해제자 541명 늘어 4492명

(서울=뉴스1) 임상준, 이영성 기자 =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격리자가 6729명으로 전날보다 3%인 221명 증가했다. 병원 격리자가 46%나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총 4492명으로 전일 대비 14%인 541명 늘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 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격리자 및 해제 현황'을 18일 오전 발표했다.

이날 격리자 6729명 중 자가 격리자는 5857명으로 전날 대비 1%인 53명 줄은 반면 병원 격리자는 전날보다 46%인 274명 늘어난 872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는 3명이 늘어 총 165명으로 확대됐다. 사망자도 4명이 추가돼 총 23명으로 집계됐다.

추가 확진자 중 164번 환자는 75번 환자와 80번 환자가 입원

중이던 삼성서울병원 병동의 의료진이다. 75·80번 환자가 지난달 27~30일 사이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됐기 때문에 이 의료진은 4차 감염자가 된다. 이로써 삼성서울병원 내 메르스 확진 의료진은 총 7명으로 늘었다.

163번 환자는 119번 환자가 아산총무병원에 입원한 기간인 6월 5~9일 같은 병동 의료진이었다.

165번 환자는 강동경희대병원 입원 환자로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강동경희대병원 확진자는 전날 레지던트인 160번 환자 발생 이후 두 번째다.

추가 사망자는 31번 환자(남, 69세, 결핵·고혈압)와 42번 환자(여, 54세, 기관지확장증·고혈압), 77번 환자(남, 64세, 고혈압·천식·괴사성췌장염·복강내감염), 82번 환자(여, 82세, 백내장 양안 수술)이다. 이들은 지난 17일과 18일 사이 사망했다. 아울러 기존 확진자들 중 40번 환자(남, 24세)와 44번 환자(여, 51세), 59번 환자(남, 44세), 62번 환자(남, 32세), 71번 환자(여, 40

세) 5명이 지난 17일 퇴원해 전체 퇴원자는 24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 투여, 대증요법 등을 통한 치료를 받아왔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호전돼 2차례 메르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완치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사망자 총 23명 중 남성이 16명(70%), 여성이 7명(30%)이었으며, 연령별로는 60대가 8명(3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0대 7명(30%), 50대 4명(17%), 80대 3명(13%) 순이다.

사망자 23명 중 각종 만성질환자(암, 심장·폐·신장질환, 당뇨, 면역저하질환 등 기저질환),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이 21명(91%)으로 나타났다.

퇴원자 총 24명 중 남성은 14명(58%), 여성은 10명(42%)이었으며, 연령별로는 40대 12명(50%), 50대 4명(17%), 20대 3명(13%), 60대·70대가 각각 2명(8%), 30대 1명(4%)으로 집계됐다.

sj@news1.kr

대통령 "건강습관 실천하면 메르스 무서워할 필요 없어"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휴교 조치를 취했다가 전날부터 수업을 재개한 서울 시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잇달아 찾아 수업상황을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 등을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남구 일원본동 소재 대모초등학교(4~12일 휴교)를 방문, 5학년 학생들의 손 씻기 등 위생교육 수업을 참관한 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 있고 있는데 이렇게 (손 씻기를) 하면 얼씬도 못할 것 같다"며 "사실 손 씻기라든가 몇 가지 건강습관을 잘 실천하면 메르스 같은 건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방문한 대모초등학교는 환자·의료진의 메르스 감염으로 '부분 폐쇄' 조치가 취해진 삼성서울병원과 직선거리로 800여미터 떨어져 있는 곳이다.

박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메르스는 '중독식 독감'이라고 할 수 있다. 연례행사처럼 독감이 퍼지는데, 메르스는 우리로선 처음 겪는 거라 혼란스러웠다"면서 "그러나 여러분이 평소 음식을 골고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생활 주변도 깨끗이 관

리하는 좋은 습관을 몸에 붙이면 이런 전염병은 얼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똑같은 바이러스가 돌아다녀도 어떤 사람은 앓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막 다닌다"며 평소 생활습관을 잘 들여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학생들에게 "밖에 나갔다가 교실이나 집에 들어올 때 손을 씻고, 기침이 나오면 수건·휴지로 가리는 건 메르스 때문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면서 "상대도 배려하면서 노력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해외여행 등을 통해)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만 있던 독감이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고, 항상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좋은 습관을 몸에 딱 익혀 항상 튼튼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수업 참관 뒤엔 학부모·교사 등과의 간담회를 열어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ys4174@news1.kr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블랙앵거스 비프** 를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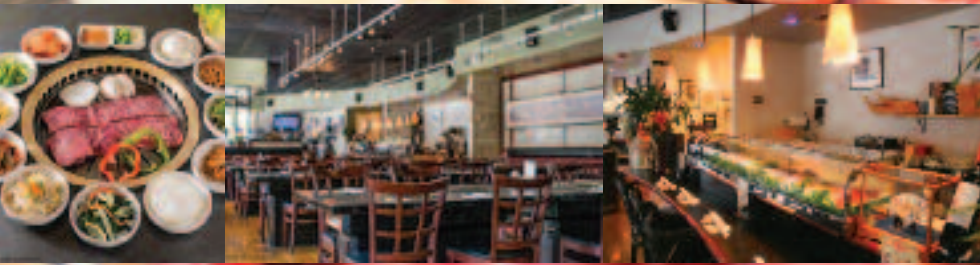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최상급 블랙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Parking Information

-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MATH GAME HOUSE

programs for the talented

Offering stimulating & fun sessions for the curious minds since 2000

M.A in Math Education, Stanford University

SUMMER STUDY 6/22 – 7/31
 Courses, SAT, Problem Solving
가을학기 시작 9/8

뉴튼 센터 617-527-0275
www.mathgamehouse.com
 email: mathgamehouse@mac.com

고려대 의대연구팀 "메르스 감염, 의료기관내 공기전파로 봐야"

최재욱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구팀, 18일 연구 논문 결과 소개

"병원내 공기나 다름없는 에어로졸 감염..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낮다"

"근거리 비말접촉이라는 고정관념으로는 방역구멍 불가피"

(서울=뉴스1) 음상준, 이영성 기자 = 우리나라에 창궐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를 의료기관 안에서 공기 전파로 봐야한다는 국내 의료진의 연구 결과가 18일 나왔다. 자연상태에서 공기감염은 아니라도 병원처럼 밀폐된 곳에서는 사실상 공기감염으로 봐야한다는 일종의 제한적 공기감염론이어서 과문이 예상된다.

보건당국 역시 환자가 숨을 쉬도록 돕는 응급 조치인 기도삽관 때 한해 공기 전파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이번 연구는 공기감염을 의료기관 건물로 확장한 것이어서 정부의 입장이 주목된다. 다만 메르스가 지역사회로 전파될 가능성은 매우 낮게 전망됐다. 일 반독감처럼 특정 감염원 없이 자연상

태의 생활에서도 감염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란 얘기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최재욱 예방 의학교실 교수는 이날 오전 11시 일부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재욱 교수는 "현재까지 정부는 메르스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병원 내에서도 공기 전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며 "(침 등이 튀기는)비말 직접 접촉으로 인한 감염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경직된 기준으로는 추가 감염 의심자가 방역당국의 관리망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개정된 메르스 대응(지침)이 환자와 2미터 이내 직접 접촉과 함께 동일 공간에 같이 있었던 의료인, 방문자, 다른 환자들을 접촉자로 정의하고 격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바뀐음에도 이런 부분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초 환자와 밀접 접촉자의 명확한 지침 부재가 격리 차단 실패로 이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밀접 접촉자 기준을 2미터 비말 접촉을 포함하고 동시에 동일 공간에 모든 사람들을 밀접 접촉으로 정의하고 추적·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런 기준은 (최초 발병 국인)사우디아라비아 CDC도 동일하다"며 "좀 더 나아가 병원에 입원한 모든 종류의 메르스 환자를 인정하라고 한다. 이런 부분이 초기 단계에 적절히 지침에 반영되지 못하고 개정 이후에도 실행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최재욱 교수는 "유럽 질병통제센터(ECDC)는 지난 11일 발표한 리포트에서 호흡기 증상 환자가 응급실을 내원할 때 환자 접촉 여부 같은 정보 공유가 되지 않거나 지연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연구팀은 정부가 병원 내 에어로졸과 미세 비말로 인한 (감염을) 배제하고 기존 비말 접촉만 계속 강조하고 있고 아직도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고대의대 최재욱 교수는 "현재까지도 정부는 메르스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병원 내 공기 전파 가능성을 부인한다"며 "비말에 의한 감염만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브리핑을 여러 차례 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 내에서 공기 전파를 언급하면 국민들이 우려할 것을 걱정하는 점은 인정하나, 비말에 의한 접촉만 강조하면 병원 내에서 2미터 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의료기관 내 공기 전파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최재욱 교수(환경의학연구소장)

상의 접촉을 어떻게 관리할지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다만 "전 세계 모든 학자와 전문가들은 메르스의 지역사회 공기 전파 가능성은 없다는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며 "병원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공기 매개에 의한 전파 가능성은 이미 미국 CDC나 사우디에서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메르스 확진 환자 정보가 늦게 공개돼 또 다른 추가 감염자가 발생했다"며 "특히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내 격리병실과 선별진료소가 있었음에도 메르스 환자 정보가 신속히 공유되지 않은 점은 뼈아프게 생

각한다"고 밝혔다.

최재욱 교수는 "정부는 이(병원 내 공기 전파)부분을 지금이라도 명백하게 인정하고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진과 국민들에게 알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의과대학 최재욱 교수는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 권고처럼 효과적인 위기관리 소통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연구 논문은 메르스의 지역사회 공기 전파 우려를 종식하고 병원 내 공기 전파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밝혀냈는데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sj@news1.kr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5**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a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Quincy College
Middlesex Community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JUNE 19TH - JUNE 25TH, 2015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and Instagram!

Chillin' & Grillin' DAD'S DAY S.A.L.E

HAPPY Father's DAY

히마트와 함께하는 아버지의날 BBQ!

Treat your dad to a delicious BBQ this weekend with special savings on all your BBQ essentials.

June 21st

U.S.D.A. CHOICE



RICH IN PROTEIN, AMINO ACID!

LIVE LOBSTER

살아있는 바닷가재

\$7.99 lb.

FRI/SAT/SUN ONLY 19/20/21 ONLY



BEEF TOP BLADE STEAK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6.99 lb.

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
 바베큐용 냉동 삼겹살
\$5.99 lb.

MARINATED TENDERIZED SLICED BEEF RIB EYE STEAK
 양념 범정 등심 스테이크
\$6.99 lb.

PORK SPARE RIBS FOR BBQ
 바베큐용 돼지갈비
\$3.49 lb.

ZO JIRUSHI ELEG. INDOOR GRILL
 조겨루시 실내용 전기그릴 EB-DLC10/ea.
\$99.99

INTRODUCING A NEW LINE OF NATURE'S

Nature's 자연담은
Rice KISSSED BY THE SUN.
 ONLY MOTHER NATURE CAN MAKE RICE SO, SO GOOD. TRY IT. LOVE IT.
 자연 그대로 담아 맛과 영양을 모두 갖춘 자연담은 곡물을 히마트에서 만나보세요

JINGA The Freshest Korean Tradition
EVERYTHING TASTES BETTER WHEN IT'S JINGA
 Handcrafted with the freshest and healthiest ingredients.
 엄선된 식재료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있는 식단까지 고려한 진가의 건강 반찬들을 맛보세요.

<p>Golden Kiwi 골드 키위 박스 VERY HIGH IN DIETARY FIBER AND VITAMIN C. FRI/SAT/SUN ONLY 19/20/21 ONLY \$22.99 box</p>	<p>Fuji Apple 후지 사과 SO CRISPY AND SO DELICIOUS... YET SO HEALTHY. FRI/SAT/SUN ONLY 19/20/21 ONLY \$0.99 lb.</p>	<p>Korean Melon 참외 박스 SWEET AND JUICY, YET SO CRISP. FRI/SAT/SUN ONLY 19/20/21 ONLY \$15.99 box</p>	<p>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IT IMPROVES BLOOD CIRCULATION. \$1.49 lb.</p>	<p>Scallion 파 FRI/SAT/SUN ONLY 19/20/21 ONLY 3\$1 bun./for</p>	<p>Sliced Pork CT Butt for Bulgogi 불고기용 냉동 돼지고기 \$5.99 lb.</p>
<p>Salted Pacific Saury 냉동 자반 공치 IT'S FULL OF ESSENTIAL NUTRIENTS. \$2.99 lb.</p>	<p>Cooked Whole Whelk 껍질 골뱅이 \$3.99 lb.</p>	<p>Premium Salted Yellow Croacker 영광굴비 선물세트 5.5 lbs./box \$34.99</p>	<p>TONGTONGBAY Bok Kum Anchovy 통통배 가족용 볶음 멸치 Medium Size/5oz. - pkg. \$5.99</p>	<p>SAM SU GAB SAN Brown Rice 삼수갑산 현미 15 lbs. \$12.99</p>	<p>HARIM Instant Ginseng Chicken Stew 허림 즉석 삼계탕 28.21oz. \$9.99</p>
<p>KAGAYAKI Premium Short Grain Rice 카가야키 쌀 15 lbs. MON - THU ONLY 22/23/24/25 ONLY \$19.99</p>	<p>NONGSHIM Shin Ramyun 농심 신라면 박스 4.2oz. x 16ea./box MON - THU ONLY 22/23/24/25 ONLY \$9.99</p>	<p>GWANG CHUN Green Tea Seasoned Layer 광천 녹차김 선물세트 0.7oz. x 10ea./box MON - THU ONLY 22/23/24/25 ONLY \$9.99</p>	<p>MAXIM Coffee Mix 맥심 커피 믹스 Original/Mocha/100ct - pkg. MON - THU ONLY 22/23/24/25 ONLY \$10.99</p>	<p>PALDO Bibim Men 팔도 비빔면 4.58oz. x 5ea./pkg. \$3.99</p>	<p>TONGTONGBAY Premium Imitation Crab Stick 통통배 프리미엄 게맛살 1.1 lbs. \$2.99</p>
<p>S&B Golden Curry S&B 골든 카레 All Varieties/8.4oz. \$2.99</p>	<p>HAIOREUM K Pop Ice Pop 해오름 케이팝 아이스크림 All Flavors/2.02fl.oz. x 6ea./pkg. \$2.99</p>	<p>Popchips 팝칩스 All Flavors/3.5oz. 2\$5 ea./for</p>	<p>NATURAL GARDEN Organic Pomegranate Juice 네츄럴 가든 유기농 석류주스 33.8fl.oz. \$2.99</p>	<p>WINDY Line Quilted Pad 윈디 줄누비 패드 Pink/Blue - ea. \$14.99</p>	<p>HELLO HOME Electric Noodle Cooker 헬로홈 무선 전기 주전자 (라면 포트) HELLO HOME Electric Noodle Cooker 1.5L/ea. \$16.99</p>

WE'RE NEVER CLOSED Store hours vary between locations. Please call the one nearest you for exact times. 히마트는 1년 365일 항상 오픈합니다. HMART BURLINGTON 43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3

합동평가단 "메르스, 6월 종식 힘들어...7월 종식도 성공적"

국회 메르스특위 전체회의 참석해 보수적 시각 밝혀

(서울=뉴스1) 유기림, 김영신 기자 = 한국-세계보건기구(WHO)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합동평가단의 한국 측 구성원들이 18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보수적인 시각을 밝혔다.

정해관 성균관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날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병원에서 유행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게 전반적인 종식인데 6월 중 종식되는 건 아마도 힘들지 않겠나"라며 "7월 중 종식되면 대단히 성공적인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의 진정 여부를 묻는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까지 대규모 유행에서는 종식 단계에 들어간 것 같다"면서도 "삼성병원은 종식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최근 새로운

소규모 발생 우려를 낳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지영미 질병관리본부 면역병리센터장은 "추가적으로 삼성서울병원과 관련해서 또 대규모 진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병원들도 있다고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20명, 30명 이상 전파시키는 슈퍼전파자가 생길 수 있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10명 이상(전파) 가능성은 열려둬야 한다"고 말했다.

지 센터장은 또한 14일의 잠복기 확대에 관한 의견을 묻는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그걸 넘어서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든다"며 "최대(잠복기) 14일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정 교수는 "지역사회 감염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순 없다"면서도 "우리나라도 당연히 대비는 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지역사회 감염의 정도는 아직까진 없다"고 짚었다.

합동평가단 공동단장인 이종구 서

울대 의과대학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 역시 "재유행은 되지 않고 있다"며 "시간은 걸리지만 좋아질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교수는 메르스 사태 대응과 관련, "과도하다시피 할 정도로 해야 한다"며 "시간과 싸움이기 때문에 많은 자원을 동원해서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국민과 국민을 안정시키고 외국에서도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아질 것"이라고 정부와 국회에 제언했다.

이 교수는 "전파 차단을 위한 노력이 제일 핵심"이라며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료진에게 맡기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윌코트프레싱(전면압박수비)해야 한다. 군대라도 동원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질병관리본부가 삼성서울병원을 통제하지 못하고 삼성서울병원 이 오히려 국가를 끌고 갔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의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세계보건기구(WHO) 메르스 합동평가단 정해관 성균관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원의 의견에 "삼성서울병원에 끌려다니는 인상이 저도 있었다. 조속히 정부가 병원을 끌고 가야 하는데 워낙 복잡하고 인적 자원에 한계가 있어서 병원 조사에 제한점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정 교수 역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작은 전쟁에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염병에 투자해야 한다"며 "이번에도 소 잃

고 외양간 고치지 못하면 앞으로 더 크고 불행한 전염병이 왔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지 센터장은 "정부 차원에서 병원 감염 관리를 위한 아주 과감한 투자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신종 전염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조직과 예산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girin@news1.kr

메르스 환자가 '제주 여행'...어디 어디 다녔나 봤더니

(제주=뉴스1) 현봉철 기자 = 지난 13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41번 환자 A씨(42)가 메르스 환자 접촉 후 증상이 있는 상태로 제주를 3박 4일간 여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141번 환자의 이동 경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 메르스 관리 대책본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부인과 아들, 친구 가족 등 8명과 함께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 KE1223편을 이용해 오후 1시 39분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나흘 후인 8일 오후 4시 24분 KE1238편으로 제주를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갔다.

A씨는 왕복비행 모두 비즈니스석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렌터카를 타고 오후 5시께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신라호텔에 도착한 A씨 일행은 오후 6시께 호텔 앞 고깃집에서 식사한 뒤 숙소로 돌아왔다.

여행 둘째 날인 6일 아침은 호텔 뷔페에서, 점심은 호텔 수영장 식당에서, 저녁은 제주시 해안도로의 횡집에서 각각 식사했다.

셋째 날인 7일에는 오전 11시께 호텔 뷔페에서 아침을 먹은 뒤 서귀포시 남원읍의 코코몽에코파크를 방문했으며, 오후 3시께 제주시 조천읍의 승마장에 갔다. A씨 일행은 오후 5시께 호텔에 돌아왔으며 A씨를 제외한 일행은 고깃집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A씨 일행은 넷째 날인 8일 오전 호텔 뷔페에서 아침식사를 한 뒤 항공편으로 귀경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제주공항에 도착한 내국인 관광객 등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대책본부는 A씨가 여행 중 몸이 좋지 않아 혼자서 차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때부터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9일 직장에서 퇴근 후 오후 4시쯤 발열 및 기침 증세를 보이자 11일까지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했으며, 12일 보건소 1차 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고 13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2차 검사 결과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메르스 중앙대책본부는 A씨가 지난달 27일 부친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외래 정기검진을 받을 당시 동행했다가 14번 환자와 접촉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18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신라호텔에서 A씨의 호텔 내 동선을 파악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34명의 밀접접촉자를 확인해 이 가운데 31명의 신원을 확인, 자가격리를 통보했다.

또 A씨가 공항에 머문 시간대의 CCTV를 비롯해 식당과 승마장 등 관광지의 정확한 상도와 동선, CCTV 등의 파악에 나섰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를 찾은 중앙역학조사반과 함께 제주 여행 동선에 대한 전반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동선을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메르스 검사를 받던 중 "내가 메르스에 걸렸다면 다 퍼뜨리고 다니겠다"고 소란을 피웠으며, 검사 결과도 기다리지 않고 걸쇠를 부수고 진료소를 벗어나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hbc@news1.kr

"메르스 한국 국가신용도에 부정적 요인"

(서울 로이터=뉴스1) 최종일 기자 =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발병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한국의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 요인이라고 18일 밝혔다.

무디스는 "질환의 확산은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이미 국내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 심리를 저하시키고, 경제에서 이제 막 시작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이어 "경제적 여파에 맞서 추진하는 경기 부양 조치 역시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디스는 한국은행(BOK)이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5%로 낮춘 점을 언급하며 통화 완화 정책은 이미 높은 가계 부채 수준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그럼에도 메르스 여파는 상대적으로 단기간 지속될 것이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무디스는 "한국은 충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음을 보여줬다. 한국의 강한 재무 상황은 발병을 막아낼 수 있는 정책적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취약한 수요와

둔화하는 수출로 인해 성장세로의 복귀는 보다 어려울 것이다"고 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장기 국가 신용 등급으로 'Aa3'를 부여했다. 이는 투자 적격 등급 가운데 위에서 4번째이다. 등급 전망은 지난 4월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 메르스 확산세는 둔화되고 있다는 조짐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 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해에는 최대 23명까지 달했지만 이번주 들어 한자릿수로 줄었다. 이날 발표된 추가 확진자 3명은 지난 1일 이후 최저이다.

아울러 메르스 격리자는 672명으로 전날보다 3%인 221명 증가했다.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총 4492명으로 전일 대비 14%인 541명 늘었다. 확진자 총 수는 165명이다. 사망자는 4명이 추가돼 총 23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전일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 내 메르스 발병은 전 세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wake up call)가 돼야 하지만,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구는 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한국 당국의 노력이 "무척 인상적"이라고 밝혔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감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감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책임 진료

닥터스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환부가 손상되기전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룩라인, 월섬)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룩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국회법 사태' 청 손잡은 김무성... 유승민과 갈라서나

김 "강제성 있다는 게 대세...
위헌성 분명한데 결재할 순
없어" 입장 선회

유 "위헌성 없다" 고수하며
대응책 고심

(서울=뉴스1) 진성훈, 이정우 기자 = 당청 갈등을 폭발시킬 기폭제로 작용할 수도 있는 '국회법 개정안' 사태를 둘러싸고 18일 새누리당 '투톱'이 다른 길을 걸을 것 같은 기류가 표면화하면서 사태의 추이가 주목된다.

그간 성향과 가치관 등의 상당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친박(친 박근혜)계에 맞선 비박(비 박근혜) 지도부로서 '불안한 동거'를 이어온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결국 '파경'을 맞을 게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국회법 사태를 둘러싸고 유 원내대표와 청와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모색해 오던 김 대표는 이날 청와대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공식화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안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강제성이 없다'는 생각으로 찬성했

는데 자구 분석에 강제성이 있다는 게 대세이기 때문에, 또 야당에서 계속 자구 강제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고 규정했다.

"우리는 위헌 소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처리) 한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유지하긴 했지만, '지금 다시 보니 강제성이 있다'는 식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김 대표는 "법이라는 게 굉장히 미묘한 자구 하나를 가지고 정확 해석을 달리 한다"며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위헌성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는 즉각 정부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 권한을 침해해 위헌성이 있다는 청와대의 입장 쪽에 기운 것으로 풀이됐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 강제성 여부에 대해 '있다는 의견도 있고, 없다는 의견도 있다'는 의견을 취해 왔다.

김 대표는 나아가 "대통령 입장에서 위헌성이 분명한데 그걸 결재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당청간 논의에 대해서 "대화는 항상 매일 하고 있다. 슬기롭게 잘 풀

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해 이 같은 입장 선회가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친 것일 수도 있음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17일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의지가 강한테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 "누구의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통과시킨 법이 위헌성이 있냐, 없냐 여부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일축했다.

이 때문에 김 대표가 법안이 국회로 돌아올 경우 이를 재의에 부치지 않고 19대 국회 종료시까지 국회에 계류시켜 자동 폐기시키는 수순으로 이미 마음을 굳힌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유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물론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에 따라 여야 합의로 일부 자구를 수정한 국회법에 '위헌성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저희들은 당초부터 강제성이 없고 위헌소지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의장 중재안대로 된다면 더 그 강제성이나 위헌 부분은 걱정이 많이 덜어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의장 말씀대로 행정부와 국회 사이의 불



18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유승민 원내대표(좌)와 김무성 대표(우)

필요한 갈등이 없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유 원내대표는 법안이 '위헌성으로 인해' 국회로 돌아오는 상황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유 원내대표에 대한 청와대의 반감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과정에 이어 이번 사태로 다시 한번 표면화한 게 아니냐는 인식이 그의 주변에서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핵심은 대통령이 여당 원

내대표를 불신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유 원내대표는 끝내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재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원내대표는 전날 측근 의원들인 원내부대표단과 함께 만찬을 하며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간 중재를 애써오던 김 대표가 청와대가 아닌 유 원내대표를 설득하는 쪽으로 결심함에 따라 유 원내대표의 선택에 따라 당청 관계가 갈릴 길에 서게 됐다.

true@news1.kr

정의화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출근하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의화 "청 거부권 행사 완강, 헌법 따라 처리"

어제 이병기 비서실장과 통화
"국회는 재의를 부쳐야 해"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청와대가 여야 합의로 일부 자구를 수정해 지난 15일 정부에 보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듭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국회의장에게 밝힌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뉴스1과 만나 "내가 어제 이병기 실장(대통령비서실장)한테 '거부권 행사를 안하는 게 좋겠다' 하는 요지로 전화를 했다"며 "그런데 (이 실장이) 상당히 완강한 것 같더라"고 말했다.

정의장은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의서를 달아서 오게 돼 있다"며 "그 이의서를 보고 헌

법 53조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53조 4항은 '재의(再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돼 있다.

정의장은 이와 관련, "(헌법에) '재의에 붙이고(부치고)의 잘못'라고 돼 있다. 국회는 재의를 부쳐야 된다"고 말해 거부권이 행사돼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올 경우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정의장은 이어 "내가 지금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의장을 할 동안 헌법 질서를 그대로 지키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riwhat@news1.kr

청, 중재안도 거부 시사...메르스 사태 속 정국 살얼음판

(서울=뉴스1) 진성훈, 서미선, 이정우 기자 = 청와대가 16일 여야 합의로 일부 자구를 수정해 정부에 전달(15일)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을 시사하면서 정국이 폭풍의 눈 속에 들어선 모습이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올 경우 청와대와 새누리당과의 당청 갈등, 새누리당 내 친박·비박 갈등, 나아가 입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으로 전화할 가능성도 높다.

가뜩이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과 동요가 극심한 상황에서 민심을 외면한 '그들만의 싸움'이라는 비판도 높아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관한 질문에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면 딱 한 글자 고쳤던데, 그렇다면 우리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국회는 전날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규정 중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구절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해 정부로 보냈다.

청와대가 개정 국회법이 정부의 행정입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히자 이런 우려를 줄이기 위

해 야당을 설득해 강제성을 완화한 것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다시 손대기 위해 야당을 설득하느라 정의화 국회의장은 통상 본회의 통과 후 1주일이나 10일이면 정부에 보내던 법안을 17일만에야 보낼 수 있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딱 한 글자 고쳤다'는 불쾌한 반응이 나오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자 청와대와 여의도 주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의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가능 시한이 오는 30일이라는 점과 법제처의 서류 처리 일정 등을 고려해 23일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거부권 행사 여부를 밝힐 가능성이 높다.

일단 새누리당 비박(비 박근혜) 지도부는 청와대의 부정적 반응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삼간 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부정적 반응에 대한 질문에 "내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그건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청와대 반응에 대한 질문에 "그것에 대해서 일절 대응을 안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도 "'만약'을 전제로 한 질문엔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앞으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청와대와의 물밑 협의를 통해 정부에 보낸 '수정' 국회법의 의미를 설득,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새누리당 내에서는 친박계를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이끈 유 원내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면서 극심한 내홍에 빠져들 공산이 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재차 시사한 것을 비판하면서 여야 합의로 보낸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문재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노력을 그렇게 (무시하겠나), 뭐 존중하지 않겠나"라며 국회법 개정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저는 대통령에게 공을 넘겼다. 더 이상 소모적 논쟁과 정쟁은 민생에 도움이 안 된다"며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와 국회의장까지 중재안을 낸 합의안에 대해 존중하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법이 국회에 돌아오면 이를 야당뿐만 아니라 입법부 전체에 대한 무시로 간주, '대통령의 오만'을 부각시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true@news1.kr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파전,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가족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U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료,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Eugene Khang DMD(강유진)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Salon Sabrina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파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남자컷 25불/여자컷 30불/파마 70불 부터
디지털 130불 부터/케라틴 매직 220불 부터 시작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황교안 인준안, 뚝뚝 뭉친 여야...이탈표는 '제로'

여당 156명 표결 참석해 대부분 '찬성'...야당은 '반대' 사실상 당론으로 관철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 여야의 찬반 표대결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8명 중 278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6표로 가결 처리됐다. 반대는 120표, 무효는 2표가 나왔다.

임명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됐다.

새누리당에서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156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새정치

민주연합 소속 의원은 119명, 무소속은 3명이 투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교롭게도 찬성표는 투표에 참석한 여당 의원의 수와 일치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156명 전원이 찬성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 출신으로 무소속인 정의화 국회의장과 유승우 의원이 이날 찬성표를 행사했다면 여당에서 이탈표가 최소 2명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끝까지 주장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자유투표'에 맡겼지만 사실상 반대 당론을 관철시킨 결과가 나왔다.

투표에 참여한 새정치연합 의원 119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여기에 야당 출신이 천재배 무소속 의원까지 반대표를 행사했다면 표결 결과인 반대

120표와 일치한다. 이날 본회의의 출석 의원 수와 표결 결과만 놓고 본다면 여든 아든 이탈표는

없어 보인다. 여야 지도부 모두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눈치다.

ydkim@news1.kr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도 표절?...문인들 견해 엇갈려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표절 의혹을 피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신경숙 작가의 해명을 존중해야 한다."

일본작가의 단편소설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신경숙 작가에 대해 문인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명원 문학평론가는 "이승준 씨의 글을 읽고 처음 든 생각은 '이것은 표절이 맞다'는 것이었다"라면서 "그리고 창비가 소설의 일부분일 뿐이므로 표절로 볼 수 없다는 해명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이 작품이 쓰여진 15년전 신경숙 작가는 당시 한국의 유력 인기작가일 뿐이었지만, 2012년에는 맨부커상의 하나로 아시아에 주어지는 맨아시아문학상의 수상자가 되는 등 이미 아시아의 대표작가로 성장했다"면서 "신경숙씨는 문단에서 가지는 지위에 걸맞게 이승준씨의 문제제기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천문학 출판사의 이효석 문학팀장은 "굉장히 매력적인, 훔치고 싶은 문장이 있을 수 있지만 표절이 맞다면 예술적으로도 이름이 높은 신경숙 작가의 쌓인 이력에 오점을 남기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표절은 우선 작가가 양심이 일차적으로 문제이며, 표절한 작품은 아무리 좋아도 소비자에게 외면받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오래전 일이 다시 불거진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 작가는 "새로운 것도 아니고 10여년 전 일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뭔가 상당히 틀어지지 않고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문단 내에서 신경숙 표절 의혹에 대한 목소리는 평론가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동료 소설가들은 출판사가 얽힌 문제라 말을 아끼는 상황

이다.

여러 소설가들은 "사태를 잘 알지 못한다. 먼저 면밀히 분석한 후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출판 관계자는 "이승준 씨는 법률자문까지 다 받고 총대를 매고 달려든 일이지만, 소설가들은 출판사와 얽힌 문제라 입장을 밝히길 꺼리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측도 많았다. 정우영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은 "본인이 일본작가의 그 작품을 안봤다고 했으니 이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한 개인을 총공격하는 양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단 신경숙씨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표절 여부는 논의로 하고 한국문학이 이 만한 작가를 만들어 낸 데는 엄청난 공이 들었다. 해외에서 이만큼 알려진 우리나라 작가는 고은 시인 외에 신경숙이 처음이므로 이 귀함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며 "지금은 서로 당혹스러울 것이니 좀 더 기다려주자"고 말했다.

일본 작가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이승준 소설가에 의해 지난 16일 제기된 후 신경숙 소설가는 17일 출판사 창비를 통해 "문제가 된 일본작가의 작품을 읽은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창비 역시 두 작품의 유사성은 전체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표절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창비 문학출판부는 "일본 작품은 극우민족주의자인 주인공이 천황 직접 통치를 주장하는 쿠데타에 참여하지 못한 후 할복자살하는 작품이며, 신경숙의 '전설'은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인간의 근원적인 사랑과 전쟁중의 인간 존재의 의미 등을 다룬 작품"이라면서 "유사한 점이라곤 신혼부부가 등장한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창비는 "(문제가 된) 신혼부부가 성애에 눈뜨는 장면 묘사는 일상적인 소재인데다가 작품 전체를 좌우할 독창적인 묘사도 아니다"며 "인용 작품들은 두 작품 공히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이를 근거로 표절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소설가이자 시인인 이승준씨는 지난 16일 온라인매체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블로그에 올린 '우상의 어둠, 문학의 타락-신경숙의 미시마 유키오 표절'이라는 글에서 신경숙의 단편소설 '전설'(1996)과 미시마 유키오의 단편 '우국'(1983)의 일부 문단을 나란히 비교하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 글이 발표된 후 과장이 커져 나갔다. 이 작가는 두 문단을 비교하며 "저것은 순전히 '다른 소설가의 저작권이 엄연한 소설의 육체'를 그대로 '제 소설'에 오려붙인 다음 슬쩍 어설픈 무늬를 그려넣어 위장하는, 그야말로 한 일반인으로서도 그려려니와, 하물며 한 순수문학 프로작가로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작품 절도행위-표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의 글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퍼져나갔고 뒤이어 표절을 부정하는 신경숙 작가와 창비의 입장발표까지 나오며 문제는 더욱 확산됐다.

여러 네티즌들은 트위터를 통해 "근데 신경숙은 표절 의혹이 한 두 개가 아님.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이란 신경숙의 '전설'의 한 문단은 아예 그냥 베껴쓴 수준임"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독자는 "신경숙 작가에게 대학노트 수백 권 분량의 습작용 필사본이 있다는 글을 어디선가 봤다. 그걸 자신의 문장으로 착각해 작품화한 건 아닐까"라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ungaungae@news1.kr



신경숙 표절 논란 - 신경숙 '오래전 집을 떠날 때 미시마 유키오' 우국 표절

창비, 신경숙 표절의혹에 '사과문' 그 의미는?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신경숙 소설가의 표절 의혹에 대해 '표절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혀 독자들의 분노를 샀던 출판사 창비가 18일 결국 독자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했다.

창비는 일본 작가의 작품 '우국'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경숙의 '전설'이 수록된 단편집 '감자먹는 사람들'을 출간한 국내 유력 출판사다.

창비는 18일 오후 강일우 대표이사 이름으로 된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내부 조율없이 적절치 못한 보도자료를 낸 점과 표절의 혐의가 충분히 제기될 법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사과했다.

창비는 당초 이날 오전 새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다가 19일로 발표를 미뤘으나, 오후에 다시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여전히 창비가 표절 자체를 인정한 게 아니라 '표절혐의를 제기할 법하다'고 둘러싼 점, 구체적인 수습책이 없는 점 등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문인들 사이에서도 사과문이 다소 '유보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창비의 사과문을 읽은 한 문학평

론가는 "전에 나온 입장은 해명인 반면 이번 것은 사과인 것은 맞다"면서도 다소 '유보적'인 사과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표절 혐의를 충분히 제기할 법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체 출간한 책을 '단정적으로 표절이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며 "우회적이거나 표절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평론가는 사과문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자유롭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언제나 공론에 귀 기울이겠습니다"라고 말한 부분은 책임문제를 정확히 명시하기보다 공론의 장에 평가를 맡기겠다는 유보적인 의미를 띠다고 지적했다. 출판사 입장에선 이 표절의혹 사태가 사실상 어떻게 번져갈 지 모르니 일단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며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신경숙 작가에 대해선 "스타 작가들은 작품 자체의 비평적 평가 외에도 '이미지'가 매우 중요한데 그의 이미지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은 것 같다"고 했다.

ungaungae@news1.kr

JESSICA BEAUTY

한국 종합 화장품 | 참존 화장품 직영

시선집중 잡티개선, 주름개선, 탄력개선, 미백까지...

“화장품에도 당신의 인격과 품격이 묻어납니다”

나만의 화장품으로, 내 피부는 내가 만든다.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상륙 참존 스킨타운샵에서 피부관리 하시는 멤버에게만 사용하는 제품

처진 피부에 희소식

스킨타운 프리미엄 리와이징 크림으로 처진 피부를 개선 (탄력강화 조식이 살아납니다) 잡티 개선 참인셀 비타민C.E크림



617.770.0188
온라인 쇼핑몰 오픈 | 무료배송

JessicaSecret.com

219 Quincy Ave. #31-A, Quincy, MA 02169
金門 Kam Man Food 중국마켓 안에 있습니다

보스톤 근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수잔 안 부동산

"TOP PRODUCER"
#1 Agent Million Sales



'Top-Producer'의 Know-how로 고객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ell: 339.224.1512

안수잔의 '고객 만족 최우선' 서비스

- 집 빠르게 팔고 사고
- 최고가격, 최고 서비스
- 건물 투자 상담



Somerville 5 Family \$ 999,900
연수입 \$78900, 주거 면적 3072 Sq. 업데이트가 많이 됨. (Anderson window, hard oak floors, granite counters, stainless appliances, Central Air Conditioning and in unit laundry), 경쟁력 있는 위치.



Brookline 2 Family \$ 1,100,000
Tax\$8490, 주거면적2366sq, 대지면적4892sq, 좋은 학교, 잘 관리 된집, Green line D 근처, Rt 9, 최상의 위치. 물 근접, 5 year Roof, 업데이트 heating system, 창문



Newton 2 Family \$749,900
2가구 세들어 있음, 총 수입 약 55,000, 대지 면적 6555 sq.ft, 년Tax \$5664



Newton \$1,300,000
2가구입주, 연수입\$84,500, 대지면적9229sq ft. 업데이트 많이 되어 있음. 렌트하기 좋은 위치(T 근처), 보스턴칼리지



Newton \$1,999,000
2013년 새집. 최고 학교, 주거면적 5857sq ft. 대지면적 10990 sq ft. 방5개, 화장실5.5개 Energy Star,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High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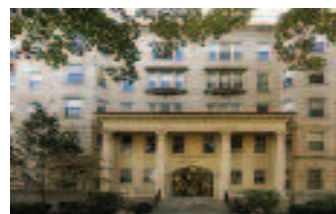
Newton \$999,000
2013년 새집, 방 4개 화장실 3개, 좋은 학교 보기도문 새집 가격, 주거 면적 3850sq ft, 대지 면적8700 sq ft.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Reading \$ 365,000
2013 새 콘도 분양. 좋은 학교, 편리한 교통, 렌트비보다 저렴한 페이먼트, 방2, 화장실2개, 주거면적 1300sq ft. 30만불대는 한 유닛 남았음. 95 고속도로 근처, Garage Parking



Burlington \$ 589,000
2013년 새집. 방3개, 화장실 2.5개, 주거 면적 2000sq ft, 대지 면적 4775 sq ft. H mart 상권 근처.



Boston Fenway \$ 364,000
방 1개, 화장실1개, 주거면적 576sq ft, 콘도 fee \$ 298 (Heat, Hot water포함) 보스톤 중심의 대학가, T Station, 공원, 박물관.



Winchester \$1,390,000
2013년 새집 최고의 학교 방4개 화장실 4.5개 주거면적 4000sq ft. 대지면적 17548sq ft. 마루 바닥, 최고의 학교, 편리한 교통

“TOP 에이전트가 TOP으로 모십니다”

centre realty group
1280 Centre St, Newton Centre, MA
460 Main St, Watertown, MA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Weekend Sunday 10am (English) 11:30am(Korean) 4:30pm(Korean)
Weekday Tuesday 10:30am(Korean), Thursday 7:30pm(Korean)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은
새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부터 시작합니다.

미사안내

No English Mass
Sunday 10 am
2015년 6월 21일~ 2015년 9월7일까지
2015년 9월20일-야외미사

New Mass
Sunday 8:30 am
6월 첫째 주부터 8월 마지막 주까지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7 CLEMATI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주일 예배: 오후 2:00 금요 모임: 저녁 7:30

이 작은 삶이 많은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이 러니마 (8편 3:18)

담임목사: 우시창
연 교회: (781) 715-0571 팩스: (781) 645-0407
http://bostongracechurch.org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30분
담임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GPS 주소: #NewHampshir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권중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보스턴 남부지역 보스턴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혀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 금 오후 8:00
새벽예배 :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보스턴에는
보스턴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턴코리아는
보스턴 언론으로서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바른 길을
건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도 보스턴 한인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보스턴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617.792.6876
bostonkorean@hotmail.com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한진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파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THE ACADEMY AT HARVARD SQUARE에서 알찬 방학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5 여름방학 선행학습 프로젝트

3 주 완성반

1st: June 29-July 17
2nd: July 20-August 7
3rd: August 10-August 28

오전수업: 9:30AM - 12:30PM
오후수업: 2:00PM - 5:00PM

최고의 강의와 최강의 관리프로그램으로 매일 3시간의 수업 후 3시간의 과제시간을 두어 교과과정에 대한 확실한 이해도와 학업성취도를 높입니다.

모든 수업은 8명 이하의 소그룹으로 진행되어 자리가 한정되어있으므로 오늘 상담신청하세요!



High School

- ACT Preparation
- Chemistry
- New PSAT (2015)
- Physics
- Algebra
- English Composition
- Geometry



Middle School

- English Language Arts
- Pre-Algebra
- Algebra
- Geometry

수업은 3시간이며 월-금 (주 5일) 입니다.



The Academy
at Harvard Square

617-492-2722



Harvard Square
30 JFK ST. 3RD FL., CAMBRIDGE MA 02138
www.theAcademy.ac | ask@theacademy.ac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인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NW, EB-1, EB-2, EB-3)
-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 617.877.3435

Fax: 617.566.7982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새로 패트리어츠에 합류한 선수들 알아보기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지난 시즌 수퍼볼 우승의 영광을 누렸던 패트리어츠는 더 이상 같은 패트리어츠가 아니다. 주요 선수들이 프리 에이전트 신분으로 대거 이탈했고, 동시에 많은 선수들이 새로 합류했다. 미니캠프가 진행 중인 패트리어츠에는 프리 에이전트를 통해, 혹은 드래프트나 트레이드를 통해 패트리어츠 유니폼을 새로 입게 된 선수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현재 패트리어츠 유니폼을 입고 있다고 해서 정규 시즌이 시작할 때까지 로스터에 남아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새로 합류한 선수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Bradley Fletcher
브래들리 플레처는 패트리어츠의 스타 코너백 대릴 레비스가 사용했던 등번호 24번을 사용하고 있다. 신체적인 조건도 레비스와 비슷하지만, 객관적인 전력상 플레처가 레비스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플레처는 NFL에 데뷔한 2009년 이후 확실한 주전 자리를 잡지 못했다. 작년에는 자신이 수비하는 선수에게 9개의 터치다운을 허용했고, 한 개의 인터셉션을 성공했다. 플레처가 수비한 선수의 패스 성공률은 53%였다.

Jabaal Sheard
자발 쉬어드는 패트리어츠가 오랫동안 눈여겨 봐왔던 선수다. 패트리어츠는 2011년 드래프트 때 쉬어드를 영입하려 했으나 스틸러스가 쉬어드를 먼저 택했다. 4년 동안의 프로 생활은 쉬어드를 더욱 노련한 선수로 만들었고, 이제는 패트리어츠의 수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쉬어드는 수비에서 전천후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당장 주전으로 기용되기 보다는 찬들러 존스나 랍 니코비치의 백업 역할로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

Scott Chandler
최근 몇 년 동안 빌 벨리치 감독은 같은 지구에 속한 라이벌 선수들을 기용하여 큰 재미를 봤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이애미 돌핀스에 영입했던 와이드 리시버 웨스 웰커이고, 최근에는 버팔로 빌스에서 타이트 엔드 스캇 찬들러를 데려왔다. 패트리어츠에는 이미 리그 최강의 타이트 엔드 랍 그롱코스키가 있다. 찬들러와 그롱코스키, 두 타이트 엔드가 동시에 엔드존을 누비고 다니면 패트리어츠는 레드존에서 가장 강력한 팀으로 거듭날 수 있다.

Jordan Richards
패트리어츠의 올해 드래프트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 조단 리차즈다. 스탠포드 출신의 세이프티 리차즈는 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패트리어츠의 선택을 받았다. 리차즈는 풋볼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수비팀뿐만 아니라 스페셜팀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선수다. 그러나 세이프티로서 풋볼에 대한 본능적인 판단이 떨어져 장거리 패스에 대한 수비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선수다.

Dane Fletcher
제라드 메이오와 단체 하이타워가 부상으로 오프시즌 동안 진행되는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패트리어츠는 라인배커 선수층을 보강하기 위해 베테랑 선수가 필요했다. 프로 생활 5년 중 첫 4년을 패트리어츠와 보낸 데인 플레처는 패트리어츠의 수비 시스템에 익숙하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계약을 맺은 플레처는 주전 선수들의 부상에 따른 보험의 성격이 강하다.

Malcom Brown
패트리어츠는 벨리치 감독이 팀을 맡은 이후 15번의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6번이나 디펜시브 라인맨을 선택했다. 올해는 텍사스 대학교 출신의 말콤 브라운이 1라운드에 선택되는 영예를 누렸다. 브라운은 오랫동안 패트리어츠 디펜시브 라인맨의 핵심이었던 빈스 윌포크의 공백을 메워줄 선수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부상으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던 도미니크 이즐리가 올해 복귀한다면 브라운과 함께 수비의 핵심 전력으로 기용될 수 있다.

Tre' Jackson
패트리어츠는 오프스브 라인맨으로 거구의 선수들을 기용하기 보다는 체구가 작더라도 빠르고 기술이 뛰어난 선수들을 중용해 왔다. 트레 잭슨은 기존 패트리어츠 오프스브 라인맨들보다 더 체격이 큰 선수다. 잭슨이 오프시즌 동안 충분히 기술을 전수 받는다면 패트리어츠의 러닝 공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Robert McClain
팔콘스에서 이적한 로버트 맥클레인은 다른 코너백에 비해서는 체격이 작은 편이다. 그러나 뛰어난 운동 신경으로 신체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있다. 맥클레인은 기복이 심하다는 단점을 극복해야 패트리어츠 주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Matt Flynn
가장 최근에 패트리어츠에 합류한 매트 플린은,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선수다. 세 번째 백업 쿼터백인 플린은 패트리어츠의 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경기에 나설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탐 브래디가 4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백업 쿼터백 지미 커라폴로까지 부상을 당한다면 플린은 패트리어츠의 공격을 이끌어야 한다.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선택된 말콤 브라운은 가장 주목 받고 있는 패트리어츠 신인 중 한 명이다

Travaris Cadet
트래버리스 캐넷은 러닝백이지만, 전 소속팀인 세인트스에서 러닝 공격보다 패스 리셉션이 더 많았던 선수다. 캐넷은 과거 패트리어츠 선수였던 케빈 포크, 대니 우드헤드, 웨인 버린의 뒤를 이어 패스를 받는 러닝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대신 주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선 패스 캐칭 능력뿐 아니라 블로킹 능력을 키워야 한다.

Robert McClain
팔콘스에서 이적한 로버트 맥클레인은 다른 코너백에 비해서는 체격이 작은 편이다. 그러나 뛰어난 운동 신경으로 신체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있다. 맥클레인은 기복이 심하다는 단점을 극복해야 패트리어츠 주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emailid@yna.co.kr

NBA- 골든스테이트, 40년 만에 왕좌 탈환

챔피언전 MVP에 앤드리 이귀달라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골든스테이트는 17일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퀴른스 아레나에서 열린 2014-2015 NBA 챔피언결정전(7전4승제) 6차전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05-97로 이겼다.

4승2패로 시리즈를 끝낸 골든스테이트는 1975년 이후 40년 만에 다시 NBA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누렸다.

당시 골든스테이트는 워싱턴 볼리츠(현 워싱턴 워저즈)를 4-0으로 완파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챔피언결정전 최우수선수(MVP)에는 골든스테이트 앤드리 이귀달라가 선정됐다.

1~3차전에 교체 선수로 나왔던 이귀달라는 NBA 사상 최초로 전 경기 선발 출전을 하지 않고도 챔피언결정전 MVP에 선정된 선수가 됐다.

전반까지 45-43으로 앞선 골든스테이트는 3쿼터 초반 클리블랜드의 티모페이 모즈고프, 트리스탄 톰프슨에게 연달아 실점해 45-47로 역전을 허용했다.

그러나 해리슨 반스의 3점슛으로 다시 전세를 뒤집은 골든스테이트는 이귀달라의 덩크슛, 드레이먼드 그린의 3점슛이 연달아 터지면서 53-47로 점수 차를 벌려 나갔다.

56-51로 골든스테이트가 앞선 3쿼터 중반 클리블랜드는 톰프슨의 덩크슛 시도가 불발됐고 골든스테이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손리빙스턴과 이귀달라의 연속 득점으로 61-51, 10점 차로 달아났다.

3쿼터 한때 15점 차까지 점수 차를 벌린 골든스테이트는 4쿼터 초반 한 차례 위기를 맞았다.

75-61에서 연달아 7실점 하며 75-68, 7점 차까지 클리블랜드에 추격을 허용한 것이다.

게다가 이어진 공격에서 클레이 톰프슨의 중거리슛이 빛나가 공격권마저 클리블랜드에 내줄 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린의 넘어지면서 공을 밖으로 쳐내 공격 리바운드를 따냈고 이것이 스티븐 커리의 3점포로 연결되면서 다시 10점 차로 달아나 한숨을 돌렸다.

골든스테이트는 83-75에서 커리와 톰프슨의 '쌍포'가 연달아 3점슛을 터뜨려 경기 종료 6분45초를 남기고 89-75로 훌쩍 달아나 클리블랜드 홈경기장에서 우승 축포를 터뜨렸다.

클리블랜드는 J.R 스미스의 3점슛 2개와 르브론 제임스의 골밑 돌파 등으로 종료 33초를 남기고 97-101까지 따라붙었으나 역전까지 이뤄내기에는 남은 시간이 부족했다.

골든스테이트는 커리와 이귀달라가 나란히 25점씩 넣었고 그린은 16점, 11리바운드, 10어시스트로 트리플더블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 골든스테이트 지휘봉을 잡은 '왕년의 3점 슈터' 스티브 커 감독은 부임 첫해에 우승을 차지하는 영예를 누렸다.

또 골든스테이트는 1991년 시카고 불스 이후 24년만에 챔피언 결정을



우승을 자축하는 골든스테이트 선수들

전을 경험한 선수가 아무도 없는 팀으로 우승까지 차지하는 사례를 만들어냈다.

반면 이번 시즌을 앞두고 마이애미 히트를 떠나 '친정' 클리블랜드에 돌아온 제임스는 고향팀에 우승을 선사하지 못했다.

1970년 창단한 클리블랜드는 아직 NBA 우승 경력이 없다.

2007년 처음 챔피언결정전에 올랐으나 샌안토니오 스퍼스에 4전 전패를 당했고 두 번째 도전이던 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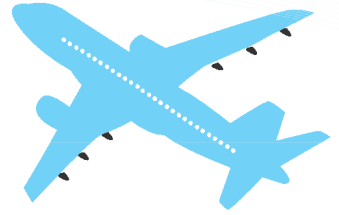
해도 골든스테이트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제임스는 이날 32점, 18리바운드, 9어시스트로 분전했다.

그는 챔피언결정전 6경기에서 평균 35.8점, 13.3리바운드, 8.8어시스트로 3개 부문 모두 양팀 통틀어 최다를 기록했다. 한 선수가 챔피언결정전에서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최다를 휩쓴 것은 올해 제임스가 처음이다.

emailid@yna.co.kr

휴람 제휴 이벤트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나에게 노안이 왔다면?

박성진 원장님이 제안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 수술
이제 휴람을 통해 눈의 불편함을 해결하세요!

-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1시간 정도)
기원안과검사, 백내장, 녹내장, 안압검사, 안저검사, 안검열, 안약도량, 안경도량, 안경 처방
-25만원 → 20만원
- 4050라식/라섹 / 노안 수술 레이저 노안교정
-200만원 → 170만원
- 백내장 수술 (단안) 일반 백내장
근시 + 원시 + 백내장 동시교정
-150만원 → 110만원

속(?) “좁은 여자가 아름답다”

5% OFF

질 이완, 불감증, 요실금... 한번에 해결!

- 양귀비 수술 (시술시간 15분 / 회복시간 1시간) 150만원
- 요실금 수술 (시술시간 20분 / 회복시간 1시간) 150만원
- 이쁜이 수술 (3D리타이팅/임플란트/영동수술) 300만원
- 그 외 수술 : 음핵수술 100만원
소음수술 200~400만원

남성 비뇨기 정밀검진 특별할인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휴람 특별가 정밀검진을 통해 당신의 비뇨기를 점검해보세요

배뇨장애 + 발기장애 + 갱년기 + 조루 + 비뇨기암 검진

-95만원 → 80만원

남성·여성 비뇨기과 수술전문병원
한국 성과학 연구소 운영

주요수술
전립선비대증, 발기부전, 성기확대술, 조루수술, 요실금수술, 정성형술, 정관수술, 정관폐쇄술 등

이윤수 & 조성완 비뇨기과

대한민국 1등 성형외과 특별할인

안면 유곽술, 인면 거상술, 윤곽, 리프팅을 잘하는 한국 성형외과에서 자신감을 찾으세요!

안면거상술 (업골)	안면거상술 (목 포함)	메쉬 리프트
-700만원 → 500만원	-800만원 → 600만원	-300만원 → 300만원
상안검	하안검	중안면 거상
-200만원 → 150만원	-200만원 → 150만원	-300만원 → 200만원



미국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이메일 huramceo@haram.kr

한국문의 82.70.4141.4040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카카오톡 010.3469.4040 / ID:huramkorea



한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끈 제품

어머님 & 아버님 선물로 안성맞춤

효도 라디오



- 숫자버튼을 이용한 초간편 사용법
- USB메모리, TF카드 (MICRO SD)에 저장된 MP3파일 직접재생
- 고성능 FM라디오
- 스마트폰, 노트북, 넷북, MP3플레이어 등의 스피커로 사용가능
- 비상용랜턴 가능
- 탈착식 리튬이온 충전배터리
- LED디스플레이 (FM주파수, 음악재생시간, 곡 번호 표시)
- 이어폰단자 채용 (스테레오)
- 3W파워스피커 + 3W 하이브리드 우퍼 채용
- 핸드스트랩 기본장착

· 한국 가요
· 트로트
· 성경 총망라

\$69
(가요5200곡 또는 성경&찬송가 택일)

\$79
(가요5200곡 + 성경&찬송가)

주문 전화 보스톤코리아 사업국 617-955-9112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력 / 50여 지역 미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0,860
Sharon, MA
3 Beds, 2.5 Baths, 2344 sf.
Near center of town location
New roof in 2014, 좋은 학군
이현주 401-935-3397



\$450,000
Sharon, MA
4 Beds, 2.5 Baths, 1666 sf.
Great Value! 좋은 학군
Lovely private 1 acre lot.
이현주 401-935-3397



\$364,900
Braintree, MA
3 Beds, 1.5 Baths, 1266sf.
Great Location!!
많이 업그레이드 된 집
이현주 401-935-3397



\$609,000
Andover, MA
3 Beds, 2.5 Baths, 2900 sf.
안전하고 조용한 주거 환경
밝고 좋은 구조의 집
제니스 리 978-806-6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60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8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949,900
Arlington, MA
5 Beds, 3.5 Baths, 3498sf.
Maintained 2002
Quiet Cul-De-Sac
Anna Jung 617-780-1675



\$1,399,000
Lexington, MA
5 beds, 3.5 Baths, 4050 sf.
Maintained 2012
Top notch construction
OT Kim 617-620-8242



\$525,000
Canton, MA
3 beds, 2.5 baths, 1848 sf.
Charming cape in a great
Convenient Location
Kwang O. Kim 617-792-8615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625,000
Wilmington, MA
3 Beds, 2.5 Bath, 3100 sf.
편리한 교통, 관리가 잘된 집
Anna Jung 617-780-1675



\$349,900
Framingham, MA
3 Beds, 1.5 Baths, 1452 sf.
Excellent location
Gina Choi 978-866-3248



\$420,000
Boston, MA
1 Bed, 1 Bath, 474 sf.
Luxury condo
Jay Lee 781-654-5281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Restaurant
\$150,000
Amherst, MA
한국에서 오래 장사한곳
Kwang O. Kim 617-792-8615

Restaurant
\$2,600,000
Dedham, MA
High traffic main road
399 seat, Full Liquor License
Sue Rong Tsai 617-792-8842

한국프랜차이즈 가맹주 모집
Call for detail
S.J Park 617-304-7001

Beauty School
\$135,000
Woburn, MA
좋은 시설, 편리한 장소
Gina Choi 978-866-3248

Space for Business
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빈자리
한인 비즈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180,000
Bedford, MA
Turn Key Business
26년동안 잘 운영된 비즈니스
Kwang O. Kim 617-792-8615

Condo Rental
\$1,525
Acton, MA
2 Beds, 1bath, 820sf.
안전하고 좋은 학군
Gina Choi 978-866-3248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지역 미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Hazel Seung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신보경
508-361-6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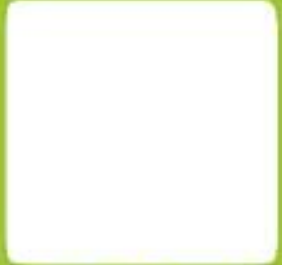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Chris Ferron
978-905-9014

Restaurant \$547,9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Cleaner \$180,000 Bedford, MA Established in 1989 Great potential to grow Kwang O. Kim 617-792-8615	Full Plant Cleaner \$180,000 Salem, MA Salem Downtown Turnkey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Restaurant \$499,900 Brookline, MA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Commercial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럴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SJ Park 617-304-7001	병원건물 \$860,000 Worcester, MA 6552 sf., 38대 주차공간 Umass Memorial 병원 옆 Anna Jung 617-780-1675
Coin Laundry \$55,000 Brookline, MA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Sushi bar and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Sushi Bar \$90,000 Newton, MA Good Location 성장 가능성 많은 비즈니스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Drycleaner \$19,000 Norwood, MA 40 lbs Washing Machine 넓은 주차공간 Anna Jung 617-780-167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Restaurant \$120,000 Boston, MA Beer&Wine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Cleaner \$19,000 Norwood, MA 40 lbs washing machine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2,600,000 Dedham, MA Legacy Place Center Sue Rong Tsal 617-792-8842
Beauty Service \$100,000 Newton, MA A turn key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Full Plant Cleaner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398,000 Cambridge, MA 하버드 스퀘어에 위치 Anna Jung 617-780-1675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오빠스시 OPPA SHUSHI
www.oppasushi.com

사시미:
상징적인 생어와 혼마구로 참치, 방어, 흰푸나, 레드스네이크, 생굴과 생우디, 한치회무침과 배운탕까지

스시와 롤:
상징적인 혼마구로 참치, 스크램블, 생선, 라마제, 장어, 새우, 오징어 등등

**사시미 롤코스
김밥**

안녕하세요 교민여러분,
업소등록을 위한
저희 오빠스시에서
상징적이고 맛있는 사시미와
스시, 롤과 김밥을
365일 캐더링
예약 판매합니다.
각종모임에 애용바랍니다.

617-202-3808 •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617-877-3435

www.Stevesuh.com

Vol. 11 No. 25 June 19 2015

발행처 : The Boston Korea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보스톤에서 즐기는 뉴욕 길거리 음식

치킨 앤 라이스 가이즈(Chicken and Rice Guys)

업소탐방 292

치킨 앤 라이스 가이즈

85 Bedford Street, Boston, MA 02111

연타비 7기타 TV로 플레이 플레이로 재미있게
다 좋은 서비스 99번에 보았어

Welcome, **7to** 한국 방송 3사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언하는 한국 방송 언하는 시기에
내 마음대로 무한대로 시청하다

티보 플레이어의
특별한 장점

화질을 비교해 보세요
HD TV의 선명한 화질

YTN 과 아리랑 방송 24시간 실시간 방송 시작!
라이브 생방송도 즐기고 원하는 시간에 무한대 시청도

방송3사와 케이블 합법 계약
공감없이 티비를 시청하세요

6월 특별 할인!
6월 30일까지 2년 역행시
이동 기입자 6월 시정료 무료

무제한 시청 월 \$29.99

지구촌방주교회
Global Ark Baptist Church

2015 출애굽기 시리즈
주일에매 1PM, 담임목사 유영일

bgabc.org
홈페이지에서
설교, 찬양 영상
영역 설교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493 Main St. Malden, MA 02148
TEL: 617.838.6434
global ark baptist church in malden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뉴욕의 대표 길거리 음식하면 떠오르는 할랄, 보스톤에 푸드트럭으로 도입해 시민들의 엄청난 인기를 독점하는 '치킨 앤 라이스 가이즈(Chicken and Rice)'가 트럭이 아닌 가게를 마련했다. 두달 전 새롭게 오픈한 치킨 앤 라이스 가이즈는 차이나타운 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다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제공된 곳은 아니므로 이 점을 방문 전 필히 참고해야겠다. 인근 회사원들을 위한 테이크 아웃 형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앉아서 먹는 식당을 생각하고 찾아가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으러 다녀야 할 수도.

치킨 앤 라이스 가이즈의 메뉴는 단순하다. 밥과 피타 브레드, 채소는 기본으로 제공되며 고기만 선택하면 된다. 고기 옵션은 닭고기와 양고기가 있으며 채식주의자를 위한 두부 옵션도 있다. 닭고기와 양고기 중에서 고민하는 사람을 위해 두 가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콤보 옵션도 있다.

사이즈는 스몰(\$5)과 레귤러(\$7)가 있다. 스몰은 가벼운 한끼 식사 또는 아이들이 먹기 좋은 사이즈이며 레귤러는 (굉장히) 푸짐한 식사로 적당하다.

고기에 밥, 피타 브레드와 야채까지 곁들이게 되므로 보이는 것보다 양이 많다는 점이 치킨 앤 라이스 가이즈의 매력이었다.

치킨 앤 라이스 가이즈가 인기있는 또 다른 이유는 이곳만의 특별 소스가 아닐까 싶다. 담백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을 더하는 크리미 갈릭(Creamy Garlic) 소스가 단연 인기가 좋다. 직원 케이(Kay)씨의 말에 의하면 "많으면 점심 때에만 6통에서 8통까지 사용한다"고

이외에도 핫소스, 엑스트라 핫소스, 바베큐 소스가 있으며 기호에 따라 새롭게 출시된 실란트로 라임 민트 소스를 함께 곁들여 먹으면 그 맛이 일품.

한편, 치킨 앤 라이스 가이즈에서는 \$10 미만은 현금결제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고기 추가(\$2)나 밥이나 피타 브레드 추가(\$1)를 권하기도 한다. 여기에 물이나 음료수까지 함께 결제해야 \$10을 채울 수 있으니 기본 식사만 하고 싶은 사람은 현금을 꼭 챙겨갈 것을 권장한다.

푸드트럭은 점심과 저녁시간으로 운영하는 반면, 가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 시간에만 문을 여니 이 또한 참고할 것.

치킨 앤 라이스 가이즈의 푸드트럭 일정은 웹사

이트(cnrguys.com)나 페이스북 페이지(facebook.com/cnrguys)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 트럭을 사랑해주는 많은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치킨 앤 라이스 가이즈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사실 지난 겨울엔 예상치 못한 폭설로 인해 운행하지 못한 경우가 몇 번 있기도 했다)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 케이 씨의 말이다.

dyoo9146@bostonkorea.com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617.536.8888
myorienttravel@gmail.com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지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청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텔레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장선교(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한국여성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	603-899-8201
뉴잉글랜드공공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연구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과기술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원인협회	508-826-5270
이화도도인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A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언어이동학(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약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공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당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020
리생명의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신실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우살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6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62
에이씨 뱀교회	978-274-2359
엠펙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엠펙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싱턴시온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617-819-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390-6613
지구총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령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조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장 브랜드스터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김민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침문	617-999-9616
이블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항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이중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분수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커파티	978-468-0039
그레이스커파티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413-5372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안구정동열굴방	617-438-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Bl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성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가트)(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사무라이	617-236-7672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케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오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뉴스	617-871-1482
퀸지스치과	617-471-2184
퍼스트우치스덴탈그룹	781-273-2233
프록스팩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코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란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기타

메모리얼병원(병리)	203-330-8080
------------	--------------

보석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뜰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7/10
브루클라인 근방 세탁소에서
프레셔로 일하실 분 구합니다.
T. 215-740-1025

7/10
세탁소에서 일하실분 구함 (프레셔-오
후 3시 이후 가능하신 분, 딜리버리)
T. 617-840-1833

7/10
풀타임 아이들 돌봐주고 집안일 해주실
분(월-금), 자동차 운전 가능하신 분, 영
어가능자, 경험자 우대 myk@myk-d.com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For Sale – Nail & Spa

Owner retired, Well established
Nail & Spa in business 15 years,
6 tables, 4 spa chairs, 3 facial/
waxing room, Modern elegant de
cor, Steady clientele, Big cash fl
ow, Clients list included,
Asking for 85K,
Buyer call 781-329-2716
English or Chinese

**For Sale
Dry Cleaner
Brookline Collidge Corner**

Well established customer and
road basd (since 1959)
New "Eco-Friendly" dry clean-
ing machine,
Asking \$299,000
Contact Carl T.617-577-9872

하우스 매매

웨스트우드(Westwood) 4베드룸, 3
배쓰, 1층 랜치, 조용하고
아주 좋은 위치 1.3에이커의 대지.
32Meadowbrook.com
가격 \$749,000
리맥스 홈팀 617-933-9778

7/17
캠브리지 하버드법대 근처
샌드위치 가게 판매, 매매가 \$150,000
(주인은퇴) T. 978-609-8752

5/29
N[매매]
올랜드 디즈니 인근 주유소 판매
디즈니 방향8차선 교차로 로컬물 진입
로에 위치, 일일통행량 8만대 이상
100% Absentee Owner로 운영중
순이익 \$10,000/월, 판매가 \$250,000
lifeisgoodfl@hotmail.com
T. 863-800-0109

5/1
N[구인]
용모 단정하고 성실하신 여성분
기본급+TIP(고수입보장)
단골손님 많고 오래된 Bar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함께
오래 일하실분
T. 470-428-1010

6/26
N[그로서리 매매]
그로서리 매매코저 합니다
Hot Food, 델리,샌드위치 포함
월매상 \$60,000 이상
월 - 금 까지 OPEN
단독건물입니다
리타이어로 급매코저 합니다.
T. 501-753-1691

4/24
N[매매]
테네시에 위치한 13년된 세탁소
월마트 쇼핑물에 위치함
매매가 \$ 320,000, 월매상 \$ 30,000
기계가 대부분 교체되어 새장비임
렌트비 월 \$ 2,500 , 면적 1,600sf
T. 931-241-0415

4/10
N[매매]
플로리다 잭슨빌에 있는
스파 매매합니다.
성업중인 가게로 건강상의 문제로
매매코저 합니다.
꼭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 바랍니다.
T. 321-458-2858

4/24
N[매매]
당도가 높은 콩, 간수 썬 천일염, 인디
안 스프링 약수를 사용한 전통식 된장,
간장을 판매합니다.
지방 한인 마켓이나 단체 주문시 도매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T. 678-764-0331, 678-656-9977

4/10
N[매매]
메이컨조지아 근처
동양마켓겸 한식당매매
년매상 1밀리언 이상
건강상의 문제로 성업중인
한국마켓 및 안에 있는 한식당매매
현재 일하시는 분 7명
확실한 매상 수입,
전화문의 및 방문 환영
T. 615-714-8016

4/10
N[매매]
FL Stuart에서 7년째
영업중인 일식집, 2,000 Sf , 75석
월렌트 \$2,700, 매매가 \$50,000
T. 772-285-8629

4/24
N[매매]
샬롯, NC 일식당 매매
히바치 16 그릴 스시바
7,000 SF 단독건물
좋은 조건에 팝니다
T. 406-259-6211

5/1
N[매매]
치킨링, Fish(생선) 튀김가게
렌트비 월\$1,600 , 면적 1,400 SF
좋은 로케이션, 주변 식당들이 모두 잘
됨. 지역은 노스캐롤라이나 웨딩빌
장비는 거의 새것임
매매가격: \$70,000
T. 910-868-4499 (11AM - 7PM 까지)

4989 부동산매매는 —
뉴스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al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prices effective as of 5/1/14.



'암살', 출연진부터 스토리까지 '대박'

7월 개봉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암살' 7월 개봉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예고편이 공개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8일 공개된 영화 '암살'(감독 최동훈) 티저 예고편은 화려하고 박진감 넘치는 전개로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다.

해당 예고편에는 1933년 화려한

상해의 밤거리와 조국이 사라진 경성을 배경으로 강렬한 총성과 함께 그곳에서의 암살 작전이 예고됐다. 결연한 눈빛으로 첫 총성을 울리며 자신의 임무를 묻는 전지현은 굳은 신념을 지닌 독립군 저격수로 분해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임시정부대원 이정재는 냉철함이 느껴지는 눈빛으로 긴장감을 자아내고 하정우는 거침없이 총을 겨누는 청부살인업자로 특유의 카리

스마를 과시한다. 여기에 하정우의 파트너 청부살인업자 오달수와 독립군 진영의 속사포 조진웅의 활약까지 더해져 풍성한 볼거리로 기대감을 높인다.

누리꾼들은 "암살 7월 개봉, 대박이네", "암살 7월 개봉, 기대된다", "암살 7월 개봉, 재밌겠다", "암살 7월 개봉, 꼭 봐야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reddgreen35@news1.kr

마마무, 크리스 게링거와 함께 신곡 작업

리한나·레이디가가 앨범 작업한 美 제작진 손잡고 컴백

(서울=뉴스1스포츠) 이경남 기자 = 걸그룹 마마무가 세계적인 엔지니어와 손잡고 완성도 높은 음악을 선보인다.

마마무 소속사 측은 17일 "마마무가 미국 출신의 유명 마스터링 엔지니어 크리스 게링거와 함께 신곡 '음오아에'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크리스 게링거는 세계적인 팝스타

리한나를 비롯해 레이디가가·제이슨 브라즈·제이지 등의 앨범을 작업한 세계 정상급 마스터링 엔지니어로 이번 마마무 앨범 작업에 참여해 수준 높은 음악을 완성하는데 크게 한몫했다.

'음오아에'는 한층 어려운 느낌의 알앤비 댄스곡으로 국내 최고 히트곡 제조기 김도훈 작곡가가 참여, 작사에는 마마무가 직접 참여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음악적 기량을 선보였다.

lee1220@news1.kr



샘김 "최현석, 늘 나보다 매출 많다고 말해"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별에서 온 세프' 샘김이 최현석과 레스토랑 매출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밝혔다.

최현석 셰프는 지난 15일 방송된 MBC '다큐스페셜-별에서 온 세프'에서 자신의 캐릭터인 허세에 대해 "본격적으로 정형돈이 캐릭터를 만들어서 허세를 붙였다. 잘 어울리고 재밌어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섭외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최현석과 친한 샘김은 "굳이 라이벌이라고 하자면 최현석 셰프와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샘김은 이어 "최현석이 매일 전화해서 매출 비교를 한다. 내가 먼저 얘기하면 늘 50, 100씩 붙여서 얘기한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며 웃었다.

'별에서 온 세프'를 본 시청자들은 "'별에서 온 세프' 유익했다", "'별에서 온 세프' 셰프들 속이야기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별에서 온 세프' 다른 셰프들도 한 번씩 나왔으면" 등 반응을 보였다.

ppbn@news1.kr



'심야식당' 단체 포스터, '사람냄새 물씬'

(서울=뉴스1스포츠) 명희숙 기자 = '심야식당' 포스터가 공개됐다.

오는 6월 말 첫 방송을 앞둔 SBS 심야드라마 '심야식당'이 따뜻함이 가득 전해지는 단체 포스터를 공개하며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공개된 단체 포스터에서는 마스터 김승우를 비롯해 연기파 배우 최재성, 남태현, 정한현, 주원성, 박준

면, 반민정, 손화령, 장희정, 강서연, 손상경까지 함께 스토리를 풀어낼 단골 손님들이 심야식당을 배경으로 모여앉아 환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또 모두 한 곳을 바라보며 누군가의 사연을 들어줄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이들의 모습은 매회 등장할 스페셜 게스트들과 그들이 그려낼 보편적이면서도 특별한 이야기에 대

한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음식을 주제로 그 속에 담겨 있는 인간애와 추억, 치유를 그려갈 '심야식당'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우리네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만큼 단체 포스터에서 역시 편안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물씬 풍기고 있어 눈길을 끈다.

reddgreen35@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5년 6월 8일 ~ 6월 14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파랑새의집)	23.6%
2	KBS1	일일연속극(가족을지켜라)	21.5%
3	MBC	주말드라마(여자를올려)	18.6%
4	KBS1	KBS9시뉴스	18.1%
5	MBC	주말특별기획(여왕의꽃)	14.8%
6	KBS2	해피선데이	14.1%
7	KBS1	전국노래자랑	13.8%
8	KBS2	금토드라마(프로듀사)	13.6%
9	KBS2	개그콘서트	13.0%
10	KBS1	가요무대	12.7%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2	아침드라마(그래도 푸르른 날에)
2	MBC	일일연속극(불굴의 차여사)
3	MBC	주말드라마(여자를올려)
4	MBC	일일특별기획(딱너같은딸)
5	MBC	창사특별기획(화정)
6	KBS2	금토드라마(프로듀사)
7	SBS	일일드라마(돌아온 황금복)
8	SBS	드라마스페셜(가면)
9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10	KBS2	수목드라마(복면검사)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뱅뱅뱅 (BANG BANG BANG)	BIGBANG
02	이럴거면 그러지말지 (Feat. Young K)	백아연
03	WE LIKE 2 PARTY	BIGBANG
04	LOVE ME RIGHT	EXO
05	LOSER	BIGBANG
06	마음	아이유
07	꺼내 먹어요	Zion.T
08	BAE BAE	BIGBANG
09	그리고 안녕	이승기
10	Me You (Feat. 백예린 Of 15&)	San E

숫자 퍼즐 (Sudoku)

		2	6	9	8			
4	8					6	2	
							5	1
	2			3		9		
3			7	9	8			2
		8		4			7	
2	6							
	7	5					8	4
		9	2		7	1		

6월 21일 - 6월 27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역전의 시기가 다가오고</p> <p>●운수: 침체된 환경이 되더라도 기본전환을 해서 빨리 우울한 감정은 털어버리세요.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역전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전: 도둑이 노리고 있으니 외출 시에는 지갑 단속을 확실하고 집에서는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애정: 이성 관계에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으로 고전이 예상되고 있으니 경솔한 행동은 자제하도록 하세요. 84, 72, 60, 48, 36년생은 21, 25일 길일. 23, 26일 주의.</p>	<p>소띠 아슬아슬하게 이어가고</p> <p>●운수: 주위와의 마찰이나 충돌의 위기가 있습니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금전: 마음의 의지여하에 따라 일의 성사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급할 때에는 도리어 손해가 됩니다. ●애정: 당장이라도 끝날 것 같은 인연관계가 아슬아슬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마저 들고 있군요. 85, 73, 61, 49, 37년생은 22, 26일 길일. 24, 27일 주의.</p>	<p>범띠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p> <p>●운수: 계약이나 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자신이 직접 하세요. 책임감 있게 처리해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금전: 이익이나 금전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세요. 현실 문제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애정: 흔들리던 마음을 바로잡고 모든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할 때입니다.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온함을 찾게 될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3, 27일 길일. 22, 25일 주의.</p>
<p>토끼띠 사랑의 힘으로</p> <p>●운수: 물이 너무 많으면 고기가 모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원리 원칙보다는 변칙이 삶의 지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전: 너무 실리를 앞세우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손해는 감수하고 융통성 있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애정: 고집이나 자존심을 버리고 사랑의 힘으로 해결점에 접근해야 합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4, 27일 길일. 23, 26일 주의.</p>	<p>용띠 후원자를 찾아야</p> <p>●운수: 차분한 상태에서 먼저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세요. 그 흐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전: 후원자를 찾아야 합니다. 성실한 모습을 보이면 반드시 도와줄 사람을 만나 위기를 넘기게 될 것입니다. ●애정: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기 쉬우니 가급적이면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우자나 이성문제로 잡념이 많아집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5, 26일 길일. 24, 27일 주의.</p>	<p>뱀띠 전화위복의 기회가</p> <p>●운수: 현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해외로 나가거나 타지로 가서 능력 발휘를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금전: 창고에 곡식이 쌓이는 운세입니다. 경제적 수입이 대폭 늘어나며 사업에 돌파구가 생길 징조가 보입니다. ●애정: 가정문제에 전화위복의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애정문제에 있어서도 희소식이 따르겠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3, 26일 길일. 25, 27일 주의.</p>
<p>말띠 예기치 않던 일로</p> <p>●운수: 성급하고 초조한 마음에 뒤에 가서 후회할 수 있는 경솔한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자포자기하지 말고 때로는 미련하게 버티세요. ●금전: 예기치 않던 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따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돈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애정: 무조건 참는다고 해서 미련다고 해서 두 사람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2, 27일 길일. 23, 26일 주의.</p>	<p>양띠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p> <p>●운수: 직장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나 사업관계에서 사소한 고민이 예견되나 주말쯤에는 풀려나갈 것입니다. ●금전: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애정: 별거나 불화 중에 있는 기혼자는 재결합하게 됩니다. 새로운 연인과의 만남으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2, 23일 길일. 26, 27일 주의.</p>	<p>원숭이띠 사랑의 표현에도 기술이 필요</p> <p>●운수: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보세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큰 수확이 따라올 것입니다. ●금전: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세요. ●애정: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에도 기술이 필요하니 자세하게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1, 27일 길일. 22, 24일 주의.</p>
<p>닭띠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한</p> <p>●운수: 개미처럼 부지런하고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한 주가 될 것입니다. ●금전: 쉽게 얻으려고 하다가는 이미 가지고 있던 것까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착실하게 쌓아가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애정: 완전히 끝낼 용기가 없다면 상태를 진심으로 받아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용서와 관용을 베풀어서 참다운 인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2, 25일 길일. 23, 26일 주의.</p>	<p>개띠 생각지도 않았던 기회가</p> <p>●운수: 귀인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서슴치 말고 협력을 부탁하면 그쪽에서도 흔쾌히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금전: 생각지도 않았던 기회가 오게 됩니다. 확실한 찬스이니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애정: 불편했던 부부관계나 이성 관계에서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멀어졌다고 느끼던 사람을 다시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군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23, 25일 길일. 21, 24일 주의.</p>	<p>돼지띠 앞을 대비한 투자가 필요한</p> <p>●운수: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성취할 수 있게 되어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됩니다. 어느 자리에 가든지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 앞을 대비한 투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에 지 확고히 해야 하겠습니다. ●애정: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주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4, 27일 길일. 21, 22일 주의.</p>



씨스타, 최현석 셰프와 '허세댄쇼' 사악한 만남

(서울=뉴스1) 권수빈 기자 = 씨스타가 최현석 셰프와 함께 '허세댄쇼-Shake it' 스페셜 영상을 공개한다. 17일 씨스타의 공식 트위터에는 "씨스타와 허세프의 사악한 만남! 최현석 춤바람 나다? '허세댄쇼-Shake it' 오후 3시를 기대해 주세요! #죽감회"라는 글과 함께 촬영

장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 속 씨스타와 최현석은 쿠키 스튜디오에서 뒤를 돌아 춤을 추는 듯한 모습으로 궁금증을 자아낸다. 씨스타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최현석 특유의 위트와 씨스타의 재기발랄함이 더해져 스페셜 영상이 탄생했다. 씨스타의 타이틀곡 제목이 'Shake it'인 만큼 음

감회가 아닌 죽감회를 통해 대중과 첫 소통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씨스타의 3번째 미니 앨범 'Shake it'은 오는 22일 공개되며 씨스타는 같은 날 오전 11시 서울 강남 삼성동 코엑스아티움에서 미디어 쇼케이스를 개최한다. ppbn@news1.kr

'뉴스룸' 지드래곤, 소신 발언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그룹 빅뱅 지드래곤이 현대미술의 상업화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손석희는 18일 저녁 8시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에서 지드래곤에게 "대중음악을 해온 사람으로서 상업성 추구할 수 있는데 현대미술이걸 꼭 왜 해야 하나. 현대미술을 상업화시킨다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드래곤은 "나는 상업성에 대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난

나이도 어리고 발전할 수 있다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한다. 예쁜 게 있고 맛있는 게 있으면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또 지드래곤은 "내가 직접 미술 공부를 하면서 좋은 관점을 소개해주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현대미술 작가들과 작업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aluem_chang@news1.kr



고소영 일상, 애엄마라 믿기 힘든 '언니 미모'

(서울=뉴스1) 온라인팀 = 배우 고소영의 남다른 일상 사진이 화제다. 고소영은 최근 자신의 SNS에 일상 사진을 게재하며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고소영은 편안한 청바지에 셔츠 차림에도 우월한 미모를 과시해 놀라움을 자아낸다. 차 안이나 서점에서의 자연스러운 일상을 공개한 고소영은 아이를 둔 엄마라고는 믿기 힘든 외모를 뽐낸

다. 누리꾼들은 "고소영 나이 들어도 여전히 예쁘다", "고소영 일상 놀라구나", "고소영 일상이 화보"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uu84@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론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류사회', 튀는 캐릭터+촌천살인 대사

(서울=뉴스1스포츠) 명희숙 기자 = '상류사회'가 첫 방송을 통해 강렬하게 시청자들에게 다가왔다.

지난 8일 첫 방송된 SBS 새 월화드라마 '상류사회'(극본 하명희/연출 최영훈)는 개성 강한 캐릭터와 귀에 쏙쏙 꽂히는 대사들의 향연으로 짝 찬 한 회를 선보이며 이른바 '꿀잼' 드라마의 탄생을 알렸다.

이날 방송에서는 재벌 딸이라는 힘겨운 왕관을 벗어버리고자 푸드마켓 아르바이트생으로 이중생활을 하는 윤하(유이 분)와, 돈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다며 조건을 따져 인간관계를 맺는 준기(성준 분)가 세 번의 우연한 마주침을 계기로 인연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과정을 경쾌하면서도 인상적인 전개로 펼쳐냈다.

첫 방송된 '상류사회'에서 무엇보다 눈길을 끈 건 살얼음판 같은 재벌가 풍경으로, 부부관계를 비롯해 남매사이까지 철저히 수직적인 온기 없는 윤하 가족의 모습이었다. 두 집 살림을 하는 것에 대해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는 제왕적 가장 원식(윤주상 분)을 비



롯해, 그런 남편을 증오하지만 재벌가 안주인 자리를 포기할 수 없는 혜수(고두심 분), 후계구도 경쟁으로 서로를 물어뜯는 예원(윤자혜 분)과 경준(이상우 분) 등 윤하의 가족들은 돈 앞에 붕괴된 관계의 전형을 보이고 있었다.

이 같은 관계를 드러내는 데 있어 인물들이 주고받는 날선 대사들과 거친 행동들은 강렬한 인상을 안겼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대놓고 첩보면서 사는 팔자"라는 서라(방은

희 분)의 조롱 가득한 대사나, "이 집에서 살려면 복종 외엔 없다"는 원식의 폭력적 언사, "난 너 때문에 되는 게 없다"며 딸 윤하를 향해 비수를 꽂는 혜수의 폭언 등 캐릭터가 처한 상황과 특징을 단박에 표출하는 섬뜩하면서도 서글픈 대사들은 윤하가 이중생활을 하는데 설득력을 부여함은 물론 '상류사회'에 팽팽한 긴장감을 서리게 했다.

reddgreen35@news1.kr

티보플레이 6월 2째주 시청률 BEST 10

- | | | |
|----|-----|------------|
| 1 | KBS | 그래도 푸르른 날에 |
| 2 | MBC | 불굴의 차여사 |
| 3 | MBC | 여자를 울려 |
| 4 | MBC | 딱 너 같은 딸 |
| 5 | MBC | 화정 |
| 6 | KBS | 프로듀사 |
| 7 | SBS | 돌아온 황금복 |
| 8 | SBS | 가면 |
| 9 | KBS | 슈퍼맨이 돌아왔다 |
| 10 | KBS | 복면검사 |

티보플레이 6월 2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MBC | 어게인 |
| 2 | SBS | 돌아온 황금복 |
| 3 | SBS | 상류사회 |

티보플레이 6월 2째주 최신 영화

'어게인' 송윤아, 흥경인 보고 눈물 왈칵 쏟은 이유는?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어게인' 송윤아가 흥경인을 보고 눈물을 흘려 그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흥경인은 지난 11일 방송된 MBC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어게인'에서 1999년 방영된 드라마 '왕초' 출연진인 차인표, 송윤아, 박상면, 이계인 등과 함께 출연했다.

이날 송윤아는 흥경인을 보자마자 반가움과 미안함에 눈물을 왈칵 쏟았다. 그는 "모르겠다 갑자기 눈물이 났다. (흥경인과) 친했는데 내가 먼저 연락 안 했겠지? 그러다 보니 시간이 너무 흘렀다"면서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이를 보고 있던 박상면은 "송윤아는 사람들 등장할 때마다 울 것 같다"고 말해 웃



음을 자아냈다. 어게인 송윤아 흥경인 모습에 누리꾼들은 "어게인 송윤아 흥경인, 오랜만에 보니 너무 반가웠나봐", "어게인 송윤아 흥경인

, 훈훈하다", "어게인 송윤아 흥경인, 보기 좋다", "어게인 송윤아 흥경인, 감동이네" 등 반응을 보였다.

aluem_chang@news1.kr

TBO PLAY

보스톤 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6월 특별 할인

6월30일까지 모든 신규 가입자 (2년 약정시)
이동 가입자 6월 시청료 무료

무제한 시청 월:

\$29.99

(정상가: \$39.99)



공중파, 케이블, 최신 영화, 뮤직비디오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송 콘텐츠를 모두 즐기는 The Best On-Demand, TBO

집에서 TV처럼 편하게 IPTV TBO Play,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TBO 내 손 안의 미디어, TBO Touch (출시예정)까지 다양하게 즐기세요.

The Best OnDemand, TBO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레지덴셜 리스팅

- 1. 브루클라인 멀티 패밀리:** Rt 9 Brookline. Chestnut Hill Mall 인근에 위치. 총4,271sqft, finished basement 면적 포함. Asking \$1.3 Mil
- 2. Colonial Single Family:** Newton Chestnut Hill에 위치. 1994년에 완공.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총면적 5,000sqft 이상, finished basement면적 포함. Asking \$1.95 Mil
- 3. Belmont 멀티 패밀리 Duplex:** Belmont High School에서 근접한 거리, 편리한 교통. 3,000sqft. 총6Bed, 2Full and 2half baths. Asking \$750,000
- 4. Watertown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편리한 교통. 2Beds 2Full baths. 1914 sqft, finished basement 면적 포함. Asking \$450,000.
- 5. Lexington Single Family:** 1,500sqft. 4Beds 1Full Bath.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Asking \$595,000
- 6. 브루클라인 콘도:** 1베드 1베스. 그라지 파킹 포함. 최상의 위치 및 학군. 주말 오픈하우스. 1731 Beacon St Brookline Unit 113. Asking \$499,900

비즈니스 리스팅

- 1. Brookline 한식/일식:** 총면적 3,300sqft. 많은 유동인구. Beer&Wine License 포함. Asking \$350,000
- 2. Cambridge 한식/일식:** 총 면적 1,200sqft. Beer&Wine License 포함. Asking \$200,000
- 3. Peabody 중식:** 단독건물. 50+ Parking. Asking \$250,000. Full Liquor.
- 4. Nashua 인근 일식/한식:** NH 단독건물 주차공간 포함. Asking \$175,000. Full Liquor.
- 5. 드롭오프 스토어:** 1,200sqft. 넓은 주차공간, Lots of vehicular traffic. Asking \$35,000
- 6. 드롭오프 스토어:** 800sqft. Asking \$30,000
- 7. 세탁소+드롭오프 스토어:** 최상의 위치. Asking \$1.85 Million. 세탁소 건물 포함.
- 8. 헤어 액세서리 카트 매매:** 보스톤 북부에 위치한 대형몰안, 좋은 위치, 안정적인 수입. Asking 55,000 인벤토리 포함.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03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새벽 울음이여!

한 8여 년 전 한국을 방문하며 선배 언니와 함께 순천의 '송광사'에서 템플스테이 경험을 한 때가 있었다. 크리스천인 내가 절에 간다는 것도 아니 될 일이었지만, 그것도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불자들이 함께 사찰에서 새벽 예불에 참석하고 잠을 자고 음식을 먹으며 지낸다는 것은 참으로 개신교 신자로서는 황당무계한 일일 게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내 마음은 한결같다. 내가 교인이라서 절에 못 갈 이유가 뭐 있겠으며 그것으로 인해 내가 불자가 되는 것은 더욱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 많은 염려와 걱정으로 시간을 허비한다.

안다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들로부터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것은 관계로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각각의 모양과 색깔과 소리로 나 자신과 마주하며 느끼는 것들인 까닭이다. 그렇다, 내가 경하지 못하고 어찌 그것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늘 마음에 평생 숙제 하나 있어 다 풀어내지 못한 과제로 때론 마음이 가난할 때가 있다. 나 자신이 개신교 신앙인이라는 것이 가슴 넉넉하다가도 무엇인가 먹은 것이 없던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소화를 다 시키지 못하는 이유일 게다. 누가 시켜서가 아닌 내가 경험한 만큼의 체험이 신앙 고백일 것이다. 이

만큼에서 나는 서 있는 것이다.

새벽 울음이여!

고요를 삼켜버린 송광사 사자루의 뜰에는 오랜 고목이 제 살을 발라 먹고 뼈를 세워 두들기지 않아도 소리 내는 목어를 키우고 부르지 않아도 찾아오는 바람은 비어 있는 마음을 두드리며 풍경을 흔든다

물이 없어도 물고기가 자라는 사자루 연못에 셋노랑고 진한 꽃분홍 수줍은 수련이 오르고 새벽을 부르는 달빛은 연못에 몸을 담고 바람은 산사의 닥나무 틀에 매인 창호지를 흔들며 새벽 예불 준비하는 승려의 장삼 자락을 훑친다

새벽을 두들기는 어린 승려들의 손가락마다 억겁의 시간을 두들기며 공간을 어우르고 법고(法鼓)가 울릴 때마다 빈 가슴에서 울림이 되고 밤과 낮을 가르며 하늘로 오르는 운판(雲板)의 여운이 텅 빈속에서 울음을 내는 목어(木魚)가 새벽을 깨운다

유교 집안에서 자란 나는 어려서 교회를 다닐 기회조차 없었다. 물론 절에도 특별히 가본 일이 없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옆집 언니 따라 교회를 처음 나갔던 내 첫사랑

의 기억이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며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 아니 그리스도에 대해 열심히 알고 싶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배우고 익히고 기도하며 지낸 시간이 있었다. 참으로 많은 깨우침과 깨달음으로 안내한 잊을 수 없는 내 내면 깊숙한 영혼의 밭에 심겨진 내 영혼의 뿌리가 되었다. 참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의 귀한 신앙고백이 되곤 했었다.

어려서 친구들과 함께 즐거움으로 오르던 피크닉 산행이 아닌 제대로 된 산을 오르게 된 것은 5년 전 처음일 게다. 그렇게 산을 오르기 시작하며 많은 삶의 변화를 느끼게 되었다. 누군가 일러주지 않아도 깊은 숲 속에 들면 저절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마음의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나 자신의 내면 깊숙한 얘기들을 하나씩 듣게 되는 것이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고 신비로운 경험이었다. 그렇게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나 자신은 더욱 작아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손길에 감사해 그만 무릎을 꿇고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산을 오를 때마다 나는 깊은 생각과 마주하며 알 듯 모를 듯 싶은 내 영혼의 물음을 하나씩 꺼내어 마주하곤 한다. 그렇게 하나씩 꺼내

어 기도처럼 버거운 오르내림의 산행길에서 보일 듯 말 듯한 답을 얻으며 비워내니 나는 평안하다. 그 누구를 탓할 그 무엇이 있을까. 모두가 부족한 모습으로 있는 너와 나 우리인 것을 말이다. 이른 새벽 준비된 맑은 공기와 깊고 푸른 풀내 맡으며 자연과 함께 걸을 수 있음으로도 벅차오르는 감동인 것을 그 무엇이 더 필요할까. 모두가 거저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인 것을 내 것인 양 움켜쥐고 잃어버릴까 안절부절 못하는 내 마음만 커져 있는 것을.

내 속에 차 있는 것들이 많아 흑여 맑은 소릴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제는 조금씩 털어내고 비워내고 씻어내어 닦아내고 싶다. 이제는 몸이든 마음이든 정신이든 간에 채워넣기보다는 조금씩 털어내어 가벼워지면 좋겠다. 그렇게 털어내고 비워낸 자리에 조금은 넉넉하고 풍성한 오늘을 맞기를 소망해 본다. 혼자이지 않은 세상에서 내가 있어 내가 있고 내가 있어 내가 있음을 감사하게 여기는 오늘이면 좋겠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틀린 것이 아님을 조금은 기다림으로 마주할 수 있는 우리네 삶이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도 맘껏 만나고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이면 .



한담객설閑談客說: 소나기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에서 소설 '소나기' 의 한 장면을 뒤돌고 패러디했던 게 나온다. 대사를 대충 옮긴다. '그런데 참 이번 기집에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썽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가 알던 소년들 꼭 산채로 같이 물어달라구...' . 영화의 주인공 견우가 잠결에 그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란다. 생각날 적마다 비적비적 혼자 웃는다. 소설보다 웃겼으니 말이다.

소설이 팔리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잘된 영화를 보고, 잘된 연속극을 보면 왜 소설이 팔리지 않는지 알 만도 하다. 도무지 한국소설이 이제는 재미가 없는 듯 싶다. 아내는 한국에 갈 적마다 '이상 문학상' '동인 문학상' 모음 따위를 사가지고 오곤 했다. 그런 아내도 더 이상 한국 소설책을 사오지 않는다. 연속극이 더 재미있으니 말이다.

생각난 김에 한마디 더 붙인다. 나타니엘 호손의 글 '큰바위의 얼굴' 을 기억하시는가. 아주 옛적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을 게다. 바위를 닮은 큰 인물이 나타날거란 믿음으로 소년 에네스티가 날마다 쳐다 보는 'old

man view' 말이다. 나도 어린 마음에 인상 깊게 읽었더랬다. 배경이 된 '올드맨 뷰' 가 우리 지역에 있는 줄은 오랫동안 모르고 지냈다. 관심도 없었고 기억할 수도 없었으니 말이다. 현대 그게 십 수년전에 무너져 내렸단다. 멀지 않은 곳인데, 직접 보기 전에 없어져 버렸으니 아쉽다. 떠나간 버스를 향해 손 흔드는 격이 되었다. 썩 대신 닳은 아는데, 나타니엘 호손의 거처였던 집을 방문해 봤다. 미니트맨 트레일 서쪽 끝 콩코드에 있다. 그의 옛 젊은 시절 사진의 모습은 꽃미남이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를 만나니 사뭇 감회가 다르다. 유서 깊은 보스톤에 사는 즐거움 중의 하나다.

한여름 가만히 누워 빗소리 들으며 소설한편 읽는 재미도 삼삼할 게다. '큰바위의 소설' 을 기다린다. 성경 한 구절이다. 번역이 예사롭지 않다. 매우 시적詩的이다.

'소나기가 타고 올 길을 누가 텅는지, 먹구름이 천둥치며 쏟아져 내릴 곳을 누가 봤는지, 너는 아느냐?' (욥기 38:25, 공동번역)

빗방울이 예사롭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소나기가 쏟아졌다. 시작은 소나기였는데 쏟아 붓던 비는 잦아들었다. 오락가락 내리는 등마는동 한동안 계속되었다. 가물던 초여름에 단비였지만, 추위도 데리고 왔다. 덕분에 감기기운이 들어섰다. 보스톤 비는 빗방울도 굵다. 잘못 맞으면 머리에 타박상 입을 수도 있겠다. 소나기는 여름에 제격이다.

해 지자 날 흐리더니
너 그리움처럼 또 비 내린다
문걸고 등 앞에 앉으면
나를 안고도 남는 너의 애정!
(유치환, 밤비)

지난 주 줄문에서 봄비라 했다. 여름이 한창

인데, 웬 봄비인지. 너무 짧았던 봄이 아쉬웠던 걸까. 내 경솔함이 봄보다 우습다. 이런 걸 되고推敲라 하던가. 소설가 황순원 선생은 글을 갈고 닦았다 했다. 그의 글은 철저히 고쳐지고 다듬어 졌다고 했으니 말이다. 너무 다듬었기에, 반질반질 윤이 나는 듯 싶다. 그의 소설, '소나기' 의 마지막 대목이다. '그런데 참 이번 기집에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썽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가 알던 웃을 꼭 그 대루 입혀서 물어달라구...' 이 대목은 기억력 시원치 않은 나도 또렷이 기억한다. '잔망스럽다' 는 말이 꽤나 재미있어 그런가 보다. 처음 들던 말이었고, 자주 쓰던 말은 아니었다. 분홍색 스웨터이던가. 계집아이가 입고 있던 웃 말이다. 참, 영화 '엽기적인 그녀'



고국의 품에서 당신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 **유방·갑상선센터**
유방암수술, 재건, 성형
- **암통합케어센터**
원스텝 진단에서 치료까지
- **자궁근종센터**
수술없이 자궁근종 치료
- **심혈관·뇌졸중센터**
심근경색, 뇌졸중, 24시간 진료
- **척추·관절센터**
무릎, 어깨, 허리, 비수술 통증치료
- **내시경센터**
위암, 대장암, 내시경 치료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www.newyjh.com



고국방문 건강검진

VIP 입원 종합검진 남: 200만원 / 여: 210만원
 입원 종합검진 남: ~~80만원~~ 60만 / 여: ~~85만원~~ 70만원
 당일 종합검진 남: ~~55만원~~ 45만 / 여: ~~65만원~~ 55만원

진료과목

소화기병센터, 자궁근종센터, 건강증진센터, 인공신장센터, 인터벤션센터, 영상의학센터
 정신건강의학센터, 유방·갑상선센터, 척추·관절센터, 암통합케어센터, 심혈관·뇌졸중센터
 이비인후과·비뇨기과, 재활치료센터, 응급의학센터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3. 유럽인들의 정착촌 건설 (2)

영국의 식민지 건설 추진
영국인들의 첫 식민지 건설은 1585년 지금의 노스캐롤라이나 주 해안에서 시작되었다. 식민지건설을 위하여 근방의 후보지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원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원주민 마을을 불태우는 일도 발생하였다. 이에 앙심을 품은 인디언들은 훗날 정착촌을 공격하게 된다. 1585년 8월 17일 107명의 영국인들이 로아노크라는 작은 섬에 상륙하여 정착촌 건설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1587년 7월에 화이트(John White) 선장이 새로운 이민자들과 함께 로아노크를 다시 찾아와 보니 정착촌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다. 이 배에 탔던 신규 이민자들을 로아노크 섬에 남겨 두고 곧 다시 보급품을 싣고 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화이트 선장은 로아노크 섬을 떠났다. 그런데 당시 바다길 사정이 녹록치 않았다. 영국과 스페인과는 전쟁상태에 있었으며 해적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서 보급품을 싣고 항해하는 일은 매우 어려워져 있었다. 화이트 선장은 몇 차례 로아노크로의 항해를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고 떠나온 지 3년이 지나 1590년 8월에야 겨우 로아노크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현지에 남았던 90명의 남자, 17명의 여자, 11명의 어린이들

은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정착지 울타리 기둥에 'Croatan' 이라는 글자만을 남겨두고 없어져 버린 이들의 행방은 오늘날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사라진 식민지(Lost Colony)' 라는 이름을 얻게 된 최초의 식민지 마을이 왜 사라졌는가에 대하여는 추측만 무성할 뿐 아직까지도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로아노크 정착촌 건설이 실패로 끝난 후 영국인들의 본격적인 정착촌 건설은 1607년 버지니아 주의 제임스타운에서 시작되었다. 한편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도 몇 개월 뒤에는 메인 주 Popham에서도 또 다른 식민지가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1607년 5월 영국은 버지니아 주 체사피크만 제임스 강어귀에서 식민지 건설을 다시 시작하였다. 103명의 첫 이주민들은 여기서도 로아노크에서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1609년부터 1610년까지의 대기근의 시기에 당시 인구 214 명중 60 명만 살아남았는데, 과학적 분석에 의하면 이들은 인육까지 먹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인들이 당초 정착지 위치를 정하면서 그곳 원주민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원주민들의 거주지에서 멀고 식수나 농경 여건 등 비교적

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을 택하였다. 그러나 정착민의 수가 늘어나고 담배 경작 등에 사용할 더 넓은 농경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인디언의 영역을 계속적으로 파고들어 오게 됨에 따라 양측 간의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영국 버지니아 식민지 이주민과의 충돌
제임스타운 인근에는 포우하탄(Powhatan) 연맹에 속한 원주민이 약 14천 명이 이미 살고 있었다. 1609년에 영국인이 인디언에게 식량을 강제로 요구함에 따라 양측 간의 갈등이 고조되어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영국 정착민은 1609년부터 가뭄으로 인한 흉작과 본국으로부터의 보급부절에 따른 식량 부족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되어 원주민들과의 식량교역이 절실하였으나 인디언 역시 그해 작황 부진으로 영국인들에게 식량을 내어줄 형편이 못되었다. 영국인들이 무력으로 식량 강탈을 시도함에 따라 양측 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고 급기야는 1610년 8월 9일 70명의 영국군이 인디언 마을을 급습하여 약 70명의 원주민을 살해하고 가옥을 불태움에 따라 양측의 갈등은 전쟁국면으로 확대되었다. 역사에서는 이 전쟁을 'Anglo Powhatan' 전쟁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앞으로 치르게 될 수

많은 인디언 전쟁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이 전쟁은 1614년 추장의 딸인 포카혼타스(Pocahontas)가 영국인들에게 납치되면서 양측 간의 적대행위가 끝나게 된다. 포카혼타스는 이미 결혼한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롤프(John Rolfe)라는 영국인과 다시 결혼하여 런던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1617년에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22세에 불과하였다. 그녀와 롤프 사이에 난 후손들은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영국인들은 더 많은 차지하게 되었으며 Powhatan 연맹에 속했던 일부 부족들은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다.

포우하탄 연맹과 영국 정착민과의 두 번째 전쟁은 1622년부터 1632년까지 10년간 계속되었다. 인디언들은 영국인들을 완전히 내쫓을 목적으로 대규모 학살사건을 일으켰다. 모피 등의 물품을 교역하기 위한 모임으로 위장하여 많은 영국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만든 다음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살해함으로써 긴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날의 기습공격으로 당시 정착민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47명이 목숨을 잃었다.

(다음 호에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86 무덕관 황기와 수박도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최흥희가 '태권도' 창시자라면 황기 역시 '수박도'의 창시자이다. 세계 태권도계의 사람들은, 특히 최흥희가 설립한 ITF의 태권도를 수련한 태권도인들은 그를 태권도의 창시자라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물론 타관他館의 태권도인들도 황기를 수박도의 창시자라고 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결국 최흥희는 국제태권도연맹(ITF)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했기에 그들의 뇌리에 박힌 것이고, 황기는 자신의 무도수련의 기본 철학인 '수도修道'를 통해서 인생의 근원적 목표를 성취함에 있었기에 홍보가 덜 되었다. 결론적으로 최흥희는 태권도를 창시하지 않았고, 황기도 수박도를 창시하지 않았다. 둘다 모두 기존에 있던 무술에서 자신들이 터득한 기예와 철학을 더하여 새로운 무도의 이름을 작명하였다. 물론 둘의 작명 동기는 현저히 차이가 난다. 최흥희는 권력에 아부하기 위해서, 즉 당시 최고권력자의 '격의'에 들어가기 위함이었으며, 황기는 중국 권법/국술을 처음으로 배워서 익힌 무도인데 '당수도'라는 일본식 이름이 마땅치 않아서 고민하던 차 1956년 서울대학교의 나현성 교수가 소개해준 '무예도보통지'를 접하고 나서 수박

도手搏道로 개명하였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수련된 '수박'은 아니다.

황기는 1914년에 태어났다. 그리고 미국에서 88세까지 장수하고 2002년 사망했다. 그는 1935년 남만주의 철도국에서 근무하면서 국술을 수련하였다.(확인된 바 없다면서 해방 후 초창기 관장들에 의해 각 관을 창설할 때 관세館勢가 가장 세면서도 무력武歷의 정통성 시비에 오르곤 했다.) 1945년 10월에 용산의 철도국 건물에서 무덕관을 창립하였다. 무덕관의 창시자인 황기는 철도국 직원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지관支館을 설립하였다. 특정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세를 넓혀나가면서 초창기 5대관 중에서 가장 많은 수련생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1953년 그는 '대한당수도협회'를 창설하였다. 1955년에는 서울역 부근에 무덕관 중앙본관을 새로이 개관하고 전국의 지관 수련생들과 함께 '한중친선국제당수도연맹대회'를 열기도 했다. 1959년 최흥희가 이끄는 국군태권도 시범단을 중심으로 '대한태권도협회'를 결성하자 그는 자신의 대한당수도협회를 '대한수박도회'로 개명하였다. 그리고 5.16 군사정변 후 포고령에 의해 사회단체 통폐합 시 무도계도 그 바람을 피할 수 없었

다. 하지만 그는 통폐합을 거부하고 미국 이민길에 올랐다. 그리고 자신의 무도인 수박도를 전파하기에 열정을 다 쏟아부었다. 그가 사망할 당시에는 미국에서 수박도를 수련하는 도장이 500여개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무엇보다 뜻있고 자긍심을 가지게하는 것은 웨스트 포인트(West Point, 미육군사관학교)에서 수박도를 무예의 정규과목으로 수업/수련을 하고있다. 물론 그의 노력 덕분이다. 또한 그의 수박도는 영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이탈리아, 필리핀 등 약 25개국에서 10만여 명이 수련하고 있다.

그는 수 많은 무예 서적을 두루 섭렵하였으며 자신이 쓴 무예서도 많이 전한다. 이에 그가 우리에게 남긴 무예서들을 통하여 그의 무도철학을 배워 본다.

1945년 해방 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발간된 무예서가 황기가 지은 '화수도 교본'이다. 1949년에 나왔으며, 그에 의하면 화수도花手道の '화花' 자는 '화랑도'의 첫자를 딴것이고 또 꽃은 모든 자연계에서 가장 원만하고 화려하며, 모든 행복의 자연적 인 발로이며, '수手' 자는 당수도의 '수'를 택했지만 일반적인 손동작의 무예를 말함이며 동시에 사람을 뜻함이다. 약 3,000여부를 인쇄한 이 교본은 6.25 발발로 인하여 600

여부 정도만 팔리고 나머지는 흐지부지 없어졌다. 그래서 사실 대중들 뿐만 아니라 무도인들도 잘 소장하지 못한 희귀본이다. 고로 그 가치는 대단하다.(이 교본을 바탕으로 1958년에 '당수도 교본'을 간행하였다) 그 외 그는 1970년에 '수박도 대감'과 1993년에는 '무도철학' 등을 편찬하였다.

황기는 자신이 수련한 무도에 대한 명칭문제에서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의 무예경력에서 만주에서는 중국무술인 '국술'을 수련했지만 해방 후 무덕관을 창설하면서, 일본에서 당수도/공수도를 수련한 초창기 타관 관장들은 '공수도'라고 불렀지만 황기는 그의 무도를 '화수도'라고 정식으로 명명했다.(화수도 교본 - 1949) 물론 일반인들은 무덕관의 무도를 '당수도'라고 불렀다. 그리고 곧 '당수도'로 했다가 1956년부터는 '수박도'라고 했다.

무덕관 창시자 황기의 무도철학은 "대자연의 원리원칙의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에 대한 관심과 사상을 환기시켜서 모든 인류가 자연스러운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인간을 육성하는 습성을 양성하여 덕망 있는 인간으로서 우리들의 행복, 건강, 평화, 자유, 평등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무도 철학 23쪽)고 후예들에게 남기고 있다.

보스톤, 뉴욕지역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세미나(무료)

가볍게 시작하는 도박, 누구나 금방 중독될 수 있다

1. 도박중독은 질병이므로 혼자 힘으로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2. 도박중독은 가족 모두를 병들게 합니다.
3. 도박중독은 죽음으로 가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4. 그러나, 도박중독은 치유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대상: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뉴욕지역) 2015년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10시

(뉴욕지역) 2015년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12시

(보스톤지역) 2015년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10시

도박중독 자가진단법

1. 일이나 공부 대신 도박으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
2. 도박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진 적이 있다. ()
3. 도박이 평판에 악영향을 끼친 적이 있다. ()
4. 도박 후 후회하거나 가책을 느낀 적이 있다. ()
5. 빚 등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박한 적이 있다. ()
6. 도박 때문에 능력 감소를 경험한 적이 있다. ()
7. 잃은 돈을 도박으로 되찾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
8. 돈을 따고서도 더 따겠다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
9. 판단이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도박을 한다. ()
10. 도박을 위해 돈을 빌린 적이 있다. ()
11. 돈 될만한 것을 팔아 도박한 적이 있다. ()
12. 생활비를 도박 밀천으로 쓰는 게 아깝지 않다. ()
13. 도박 때문에 자신과 가족을 소홀히 한 적이 있다. ()
14. 당초 계획보다 오랜 시간 도박한 적이 있다. ()
15. 불안감이나 걱정거리를 피하려 도박한 적이 있다. ()
16. 도박 밀천 마련을 위해 나쁜 일을 계획한 적이 있다. ()
17. 도박 때문에 수면을 취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 ()
18. 부부싸움, 의견대립 등으로 도박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
19. 도박으로 한 밀천 잡아보겠다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
20. 도박 때문에 자살이나 자해를 생각해본 적이 있다. ()

위의 20개 문항 중 '예' 대답이 4개가 넘으면 도박중독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7개 이상이면 중독이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꼭 필요하다.

보스톤 지역

장소: 보스톤 주님의 교회(박찬수목사)
주소: 285 Lake Street, Waltham, MA 02451
전화: (617)966-9608, (510)673-8584

2015년 6월 27일(토요일)

19:00-19:10	환영사와 기도	박찬수목사	보스톤 주님의 교회 담임
19:10-20:00	도박중독에 대한 이해	백남원목사	모닝스타 회복선교센터 대표
20:00-20:40	중독 당사자 회복체험 발표	김병화, 제임스리	산호세 단도박 모임
20:40-21:00	자아의 정체성과 중독치유	서해남목사	북가주 생명의 전화 부원장
21:00-21:20	중독자 가족 회복체험 발표	귀리자매, 경자매	산호세 단도박 가족모임
21:20-22:00	도박중독 치유방안	백남원목사	모닝스타 회복선교센터 대표

공동주최: 보스톤 주님의 교회,
모닝스타 회복선교센터

특별후원: 보스톤 코리아신문

후원: 메스코팅, 상항 구세군 올네이션스 교회,
북가주 생명의전화, 북가주 농아교회

뉴욕 지역

장소: 뉴욕 온유한교회(안승백목사)
주소: 35-24 Union Street #B, Flushing, NY 11354
전화: (646)233-8770, (510)673-8584

2015년 6월 26일(금요일)

19:00-19:10	환영사와 기도	안승백목사	뉴욕 온유한교회 담임
19:10-20:00	도박중독에 대한 이해(1)	백남원목사	모닝스타 회복선교센터 대표
20:00-20:20	중독 당사자 회복체험 발표	김병화간사	산호세 단도박 모임
20:20-20:40	중독치유와 교회의 역할	오관근사관	샌프란시스코 구세군교회 담임
20:40-21:00	중독자 가족 회복체험 발표	경자매	산호세 단도박 가족모임
21:00-21:30	자아의 정체성과 중독치유(1)	서해남목사	북가주 생명의 전화 부원장
21:30-22:00	도박중독에 대한 이해(2)	백남원목사	모닝스타 회복선교센터 대표

2015년 6월 27일(토요일)

9:00-9:10	환영사와 기도	안승백목사	뉴욕 온유한교회 담임
9:10-10:00	도박중독 치유방안(1)	백남원목사	모닝스타 회복선교센터 대표
10:00-10:20	중독 당사자 회복체험 발표	제임스리간사	산호세 단도박 모임
10:20-10:40	치유기관 소개	오관근사관	샌프란시스코 구세군교회 담임
10:40-11:00	중독자 가족 회복체험 발표	귀리자매	산호세 단도박 가족모임
11:00-11:30	자아의 정체성과 중독치유(2)	서해남목사	북가주 생명의 전화 부원장
11:30-12:00	도박중독 치유방안(2)	백남원목사	모닝스타 회복선교센터 대표

토요일(27일) 오후에는 개별상담을 해 드립니다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설마 우리 아이가?'
- 김정운 가족의 치유를 기원하며 -

하버드와 스탠포드 대학의 동시 거짓 입학 을 지인과 친구들에게 잘못 과시하다 언론인 이 개입하면서 더욱 큰 사기극의 물의를 일으 킨 '천재소녀' 김정운 양의 이야기로 보스턴이 잠시 후끈했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녀가 했던 행동은 반복되었던 '공상 허언증 (Pseudologia Fantasia)'과 '회상형 기억조작 (Retrospective Falsification)'의 장애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증상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 다. 하지만 한국 어른의 입장에서, 아직 김양이 18살 밖에 안된 소녀이고, 김정운 아버지도 앞 으로 김양과 가족의 치료에 전력을 다해 살아 가겠다는 말을 했으므로 단정적인 진단을 보 류하고 싶다. 김양을 나무라기 전, 우리 어른들 은 김양이 '건강한 어른'으로 일어날 수 있게 인내와 애정으로 감싸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설마 우리 아이가? 하고 철썩같이 믿었는데 , 이럴 줄은 몰랐다고 애통해하시는 부모님들 이 있다. 대부분 케이스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나친 교육열에 있었다. 애슬리는 단 한 번도 속을 썩인적도 없었고 음악, 미술, 공부 등 모 든 것에 일등을 휩쓸던 딸이었다. 대학을 마치고 그 힘든 의대에 합격을 했고, 의대 인턴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날벼락이 떨어지고 말았 다. 언제나 충족한 만족과 삶의 기쁨을 주던 그 딸이 도박에 중독이 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한 도박장으로부터 딸이 빚을 내지 못해 불모로 잡혀있다고 전화가 왔다. 그녀의 도박 중독이 발견되면서, 굳게 믿었던 딸이 몇 년 동안 자신의 스트레스를 도박으로 풀었음 을 발견하였고 부모에 대한 반항이 본격적으 로 시작되었다.

빚은 대학에서 대마초에 중독이 되어가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마초 딜러가 되었다. 대마초 딜러를 그만두고 싶었지만 쉽게 버는 돈의 유혹과 점점 빠져들어 가는 중독을 떨치 기 힘들었다. 결국 경찰에 잡히고 말았다. 청천 백력의 부모는 보석금 만 불을 주고 데리고 나

와, 변호사 비용으로 수천 달러를 쓰면서, 형을 받지 않고 몇 년의 집행 유예를 받게 했다. 테 라피 중 아버지는 웨스트 포인트에 가고 싶다는 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반강제적으로 남 들이 좋다는 대학교에 보낸 게 너무나 후회가 된다고 했다.

작년 2월 뉴턴 사우스 고등학교 11 학년을 다 니던 로이 그릇맨이 자살을 하면서 충격을 주 었다. 로이의 가족은 로이가 3살 때 이스라엘 에서 뉴턴으로 이주했다. 부모는 로이는 어린 시절부터 의사가 되고 싶어했다고 했다. 심장 질환이나 알츠하이머에 관심이 많았고, 이미 존스홉킨스에 적을 두고 공부를 했다. 그의 남 동생은 이 목표가 로이를 매우 힘들게 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친구들은 로이는 항상 배려 심이 많고 재미있고 자신만만해서 전혀 그가 심한 스트레스로 불안증에 있는 줄을 몰랐다고 했다. 그는 자살하기 전 날, 뒷마당에서 여 동생과 눈 싸움을 하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천진하고 행복해보이는 그의 사진이 더욱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 했다. 자살은 우리 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더욱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마르티나 도이힐러 교수(한국의 유교학 과 정, 1992)는 한국 사회의 유교적 전통은 1990년 대 이후 급격히 무너졌고, 앞으로 부계 중심 사 회는 존속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러 면서 현재 한국은 부계 중심 사회에서 부계와 모계를 모두 중시하는 양계(兩系) 사회로 바뀌 는 전환기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선의 건국 세력인 '신흥 사대부'는 '부계'와 '장자'를 강조 하며, 나머지 집단을 지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게만 허용되었고 세습하 게 했다.

이 엘리트 의식은 조선 왕조가 몰락한 지, 108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다만 새로운 형 태로 계승되어 갈 뿐이다. 학벌지상주의를 통 해 자신들만의 엘리트 의식을 지키면서, 한국 은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과 경제적 풍요가 연

결되어 있다. 고도의 경제 성장이 일어나는 1990년대부터 유창한 영어실력이 한국 사회의 '권력'과 '부'를 획득할 수 있다는 풍조가 더욱 크게 일어났다. 엘리트 그룹에 진입하려면, 어 릴 때부터 영어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영어 조기 교육'이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중반 상류층을 중심으로 조기유학 붐이 일어 났고 아내와 자녀를 해외로 보내고 국내에서 뒷바라지를 하는 '기러기 아빠'라는 새로운 가 족 형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사교육을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버지, 아이를 명문대에 보낼 수 교육 정보를 잘 알고, 잘 지도할 수 있는 능력 이 있는 어머니의 역할이 행복한 가정에 중요 한 요소가 되면서, 한국 사회가 형성한 신중의 '양계 사회'의 한 단면이라 볼수 있다. 신명호 (2011)는 그의 논문을 통해 학력과 사회적 지 위가 높은 중산층 엘리트 부모일수록 강한 학 별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이 어릴 때부 터 학업 지향적, 경쟁적인 태도를 갖도록 키우 면서 공부에 대한 의무감을 느끼도록 교육시 킨다고 한다.

대상 관계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태어나 서 3살까지의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는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가에 절대적인 영향이 있다고 한다. 어릴적 어머니와 친밀한 애착형 성은 미래의 아이의 생의 정서적 안정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친다. 4세 이후, 도덕감과 생의 질 서의 토대를 배우는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역 할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아버지의 존재는 어머니와의 밀착한 관계를 벗어나, 아 이가 독립적인 개체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 고, 좋은 인격형성을 갖게 도와준다.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훌륭한 인격체 로 성장되게 도와주는 '부모'의 역할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학부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면 아버지의 자리는 위축될 수 밖 에 없다. 그 많은 교육비를 감당하려 열심히 일 을 하다보니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아버

지의 자리가 비어있기 쉽기 때문이다. 안정된 직장을 가지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 만, 훌쩍 커버린 아이들은 아버지와 친하지가 않다. 친한 어머니와 아이들의 관계는 아버지 를 더욱 외롭게 한다. 설상가상, 친해져야 할 가족이 가족의 행복의 순위를 자식의 공부 순 위라 믿고, 조기 유학의 기러기 가족이 된다면 , 아버지의 존재는 비즈니스적으로 변할 수 있 다.

김정운은 사실 특수 과학고를 갈만큼 똑똑 한 학생이다. 집안도 남들이 부러워 하는 엘리 트 그룹에 있다. 그런데 왜 '공상 허언증' 과 ' 회상형 기억 조작'이라는 장애를 얻게 되었을 까? 공상허언증 환자는 참 자아보다 거짓자아 를 자기라고 믿는다. 참 자아가 성숙할수록 자 신을 남에게 솔직하게 보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거짓자아는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망 의 자아이다. 현실보다 자신의 이상의 세계 안 에 있다. 우리 모두 어느 정도의 거짓자아의 모 습이 있다. 하지만 항상 아이의 좋은 면이나 성 과에 만족하지 않고, 부모 욕구에 맞추어 아이 를 억지로 만들려 하다 보면 칭찬보다는 질책 이 앞선다. 그 결과 아이는 항상 자신이 부모의 열망에 따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존심 은 손상되고 자신이 점점 더 없어진다. 자신의 '참 자아'보다 '거짓자아'를 강요하는 부모의 억압에 스트레스가 극심해지면서, 자기방어를 위해 거짓자아를 진짜 자아로 믿고, 뇌가 스스 로 조작을 하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아이들이 '참 자아'를 갖기 위해서는 아버지 의 자리가 튼튼해져야 한다. 아버지 자신들이 위상이 막강한 부계사회의 완벽한 아버지가 아닌, 양계사회의 다정다감한 아버지의 자리 를 찾아야 한다. 어머니가 억지로 아이를 만들 려 할 때,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아버지의 목 소리를 강화해야 한다. 김정운 아버지가 사과 문에서 약속한 것처럼 아버지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하고, 목소리에 힘을 갖는다면, 김정운 은 건강한 어른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Essay Writing Workshops: Middle and High School

Make essay writing easier for you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Enroll your student in a ReadWrite essay workshop where students study the elements of a quality essay and prepare, write and revise up to two essays in class.

\$150 per week/ \$125 Early Bird Discount. Register by May 15.

Monday to Friday
9:00 to 11:00 AM

Weekly sessions run from
July 6 to August 14

Summer Days Program: Grades 3 to 8

Our Summer Days program offers kids summer fun while they continue to build their reading, critical thinking and writing skills. In between outdoor activities and creative projects, kids read, discuss readings and write related essays.

\$270 per week/ \$250 Early Bird Discount. Register by May 15

Monday to Friday
9:00 to 3:00 PM
Before care and extended
day options available.
Weekly sessions run from
July 6 to August 14

Weekly Year-Round Classes: First Grade through High School

Students practice essay writing, and critical thinking and reading skills in a small class. Students improve writing skills by drafting, revising and polishing persuasive essays, opinion pieces, narratives and more. Our curriculum and class size are structured for open enrollment, and ensure that each student's needs are met. Classes are held year-round.

Class schedules can be found at:
<http://www.bostonreadwrite.com/schedule/>

- Classes: (Grades 1-12)
- Reading/Writing Workshop (1-4)
 - Literary Analysis (5 to 8)
 - Expository Analysis (5 to 10)
 - Intensive Essay Writing (High school)
 - Tutoring: SAT, ACT, ISEE, SSAT

Summer 2015 Program
Sign Up Now!



앤티비(*enjoy & 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착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한국 방송 3사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원하는 한국 방송 원하는 시간에 내 마음대로 무한대로 시청하다



티보 플레이만의 특별한 장점

화질을 비교해 보세요
HD TV의 선명한 화질

YTN 과 아리랑 방송 24시간 실시간 방송 시작!
라이브 생방송도 즐기고 원하는 시간에 무한대 시청도

방송3사와 케이블 합법 계약
끊김없이 티비를 시청하세요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6월 특별 할인!

무제한 시청 월 \$ 29.99

6월 30일까지(2년 약정시)

이동 가입자 6월 시청료 무료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서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87) 벵가드(Vanguard) 40년

미국에서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런 버핏 회사가 2015년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회사 연례행사에 40,000명 이상이 오마하(Omaha, NE)에 함께 모여 회사 생일을 요란하게 축하했습니다.

미국에서 인덱스 펀드를 처음 시작한 벵가드는 올해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확히 1975년 5월 1일입니다. 벵가드는 멀번(Malvern, PA)에 있는데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이 무려 20 billion인데도 말입니다. “왜 생일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투자 경비를 어떻게 저렴하게 유지하는지를 아십니까?” 하고 벵가드 대변인이 되물었습니다.

벵가드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벵가드는 몇천 만의 투자자를 도와주고 있으며 여기에 필자는 물론 저의 회사 모든 고객도 포함됩니다. 벵가드는 사실 독립적인 회사가 아니고 모든 투자자가 벵가드를 소유하고 있는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가 벵가드에 투자하든 안 하든 2013년 이후부터 미국 전체 투자자의 돈 25%가 벵가드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3.1 trillion 보유하게 되었고 79개의 인덱스 펀드와 뮤추얼 펀드 각각에 투자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투자자가 벵가드에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순서 없이 함께 알아봅시다.

*저렴한 투자경비

한 푼이라도 경비가 적으면 그만큼 나의 호주머니에 남아 있습니다. 투자하는 금융 업계에서는 “싼 것이 비지떡” 이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투자 상품이 비싸면 제대로 된 상품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제대로 된 상품이 아니라는 말은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뜻입니다.

투자 경비는 주식시장에서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실이 나와도 경비는 같은 비율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투자하기 전 발생하는 모든 투자경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알게 모르게 부과되는 경비를 알지 못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과

똑같습니다.

*투자 안내심

벵가드 설립자인 존 보글(John Bogle)이 처음 인덱스 펀드를 시작할 때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이 조롱하며 웃었습니다. 그 당시 주식전문가라는 사람들은 특정한 회사를 연구하고 조사한 후 선별해서 투자하는데 인덱스 펀드는 그러한 과정 없이 인덱스에 포함된 모든 회사에 투자합니다. (참고로 S&P 500 인덱스는 총 주식가격 규모로 가장 커다란 500개 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존 보글은 이러한 조롱과 조소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렴한 투자 경비와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평균 수익률이 결국에는 성공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너도나도 주식 대박을 은근히 기대합니다. 그러나 진정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투자, 저렴한 경비, 그리고 낮은 투자 위험성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투자 수익률

어떤 특정한 회사를 선별해서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와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을 비교해 봅시다. 올해 3월 초 한 연구기관(S&P Dow Jones Indices Scorecard)에서 뮤추얼 펀드의 성적을 발표했습니다. 2014년 대기업에 투자한 뮤추얼 펀드의 수익률이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더 높았던 뮤추얼 펀드는 단지 14%였다는 결과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못했던 뮤추얼 펀드가 무려 86%였다는 사실입니다. (관련기사: 86% of investment manages stunk in 2014, CNN money)

과거 5년 동안 인덱스 펀드보다 저조했던 뮤추얼 펀드는 89% 그리고 10년 동안 인덱스 펀드 수익률보다 뒤떨어졌던 뮤추얼 펀드는 82%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벵가드를 이용한 투자자는 성공하는 투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투자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전문 스테이징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전문 스테이징 서비스를 이용하는 셀러들이 늘고 있다.

주택을 시장에 선보이기 전에 전문가를 이용해 집을 꾸미는 준비 작업이 스테이징이다. 셀러 자신이 집 안팎을 정리한 후 청소하고 앞마당에 꽃을 심는 정도의 준비를 넘어서서 이제는 주택 매매 스테이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다.

그동안 성행하였던 플립 주택시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가능한 한 빠른 기간 내에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플립 시장이 휩쓸고 간 여파이다.

대대적인 수리 후 집을 비워두기보다는 새 가구로 산뜻하게 단장하고 시장가보다 낮게 리스팅 가격을 정하여 많은 바이어들을 동시에 불러 모아 경쟁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최고의 가격을 받게 된다. 플립 매매가 지난 2~3년 동안 활발했고 그 영향을 받아 전에는 찾아 볼 수 없었던 모 델하우스의 개념이 이제는 일반 매매에서도 필수 요건으로 다가오고 있다.

전문인테리어를 선택 고용하기에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집의 크기에 따라 들어오는 가구의 양과 질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크다. 작게는 4,000~5,000달러에서 많게는 수만달러에 이르는 투자이다. 실제로 어떤 셀러는 차라리 그 돈으로 새로 이사 가

는 집에 맞는 새 가구를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기도 한다. 과연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을까? 2015년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 조사 결과 바이어 에이전트의 49% 정도가 바이어가 매물을 볼 때 전문 스테이징이 큰 영향을 준다고 대답하였다. 47%는 가끔씩 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32%는 전문 스테이징을 하게 된다면 가격의 약 5%까지 집값을 올려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100만달러의 주택이라면 최고 5만달러를 더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34%에 달하는 리스팅 에이전트는 집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셀러와 합의하여 항상 스테이징을 한다며 13% 정도는 팔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매물에 한해, 그리고 4%는 고가의 저택만을 스테이징 한다고 대답하였다.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원하는 스테이징의 우선순위, 즉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소는 거실, 부엌, 안방, 다이닝룸, 그리고 화장실 순이다.

반드시 집안 전체를 스테이징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가구와 소품의 양이 많아지고 고급일 수록 스테이징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니 담당자 및 본인의 리스팅 에이전트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한다. 셀

러의 결정에 따라 거실에는 새 소파를 들여 놓게 되지만 부엌 정도는 단지 소품만으로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먼저 이사를 간 후 빈집에 하는 스테이징과 셀러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하는 것이 비용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 즉 지금 셀러가 살고 있다면 안방에는 기존의 침대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침구 세트, 예컨대 이불과 베게 세트만 전문가에게 부탁하게 되면 훨씬 경비를 절약하면서 동시에 산뜻한 새 가구 분위기가 살아난다.

아이들 방이나 두 번째 화장실은 생략한다. 바이어들이 집을 들어오며 시작되는 동선에 따라 그 가치를 둔다. 집에 도착하여 현관에 들어서고 거실을 지나며 부엌과 안방에 도착하였을 때 바이어들은 이미 매입 여부를 결정하곤 한다. 2층 집이라면 1층에만 투자하고 이층은 생략해도 된다.

셀러는 매매를 위해 바이어가 필요하다. 일단 시장에 내놓게 되면 더 이상 본인의 집이 아니다. 최고의 가격을 받으며 잘 팔기 위해서는 바이어의 눈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수십년, 혹은 수년 동안 살아온 내 집을 객관적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 개인적인 소품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수년 동안 사용해 온 유행 지난 가구들을

일시에 바꾸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새 가구로 단장하자니 다음 집에 맞을 리 없다. 모든 셀러들이 전문 인테리어가 아니며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 리스팅 에이전트도 마찬가지이다.

전문 스테이징을 이용할 경우 투자 대비 돌아오는 이익이 크다. 바이어의 마음을 열기가 훨씬 용이하다. 거의 절반에 달하는 에이전트들이 그 효과에 동의하고 있으며 많은 셀러들이 이를 고려하거나 선택하고 있다.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휴람 제휴 이벤트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성형&전문치료&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서울메디케어
서울메디케어는 연면적 1000평에 달하는
서부권역최고 최대수준의 **대학병원급 건강검진센터**입니다

서울메디케어 ·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검진 프로그램
(수면대장내시경 포함 시 10만원 추가)

종류	남자	여자
휴람기본	62만원 → 47만원	78만원 → 59만원
휴람청일	120만원 → 91만원	138만원 → 103만원
휴람VVIP	304만원 → 228만원	320만원 → 240만원

SEOUL MEDICARE [검진시간 안내]
평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토요일: 오전 8시 ~ 오후 1시 · 점심시간: 오후 1시 ~ 2시

휴람 제휴 이벤트

루트모발 이식센터

6명의 모발이식 전문의료진
4개의 모발이식 전용수술실

휴람제휴 해외동포 '특별이벤트'

모발이식 5만원씩 할인
수술후 세정제 3만5천원 Free
생착률을 도와주는 EGF가 3만원 Free

절개	비용	비절개	비용	절개+비절개	비용
4000모	290만원	2000모	400만원	7000모	790만원
5000모	390만원	2500모	450만원	8000모	990만원
		3000모	500만원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새미치과 특별할인

새미의 이벤트

오스템 임플란트 150만원 → 120만원	무삭제 라미네이트 80만원 → 60만원	오스템 미백 1회 20만원 + 1회 제공
--------------------------------------	-------------------------------------	---------------------------

고국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임플란트 시술받으세요!

새미치과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웃음을 찾아드립니다.

대표원장 이두형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동부병원 치과 과장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외래교수
- 대한구강학 안전임플란트학회 정회원
- 대한구강보존학회 정회원

새미치과 임플란트 치아미백 치주치료 심미보철 예방치료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에디그 에스테틱 특별할인

에디그 에스테틱이 특별한 이유!

럭셔리인테리어와 고급관리
1:1 전문관리와 프라이빗 룸
동안 미스 스킨 케어 마사지

이태리 최상의 브랜드 사용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관리사

스페셜 힐링 케어 - Facial care + Healing back care - 120 min 19만원 → 15만원	스페셜 힐링 스칼프 케어 - Healing scalp care + Facial care - 120 min 20만원 → 16만원	스페셜 슬리밍 케어 - Facial care + Slimming leg care - 120 min 25만원 → 20만원
전신 홀리스틱 아로마 케어 - 아로마 전신케어 + 강력보습케어 32만원 → 26만원	전신 고주파 케어 - 고주파 전신케어 + 강력보습케어 38만원 → 30만원	나이가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아름답게 나이 드는 방법이 있다. 에디그만의 특별한 관리로 시간의 흐름을 잠시 멈추보세요



미국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이메일 huramceo@huram.kr

한국문의 82.70.4141.4040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카카오톡 010.3469.4040 / ID:huramkorea



윤희경
보스톤봉사회

오바마케어 운명이 걸린 대법원 소송

생사를 거머쥔 또 하나의 대법원 판결을 코앞에 두고 있다. 2010년 정치이념의 싸움판속에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법이 기적적으로 입법되었다. 그 후에도 공화당이 주축이 된 과소적인 공격에도 살아남아, 2014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보험법이 실행되어 왔다. 현재 2천 5백만명이 무보험의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는 6월 29일 이전에 나올 판결은 이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다.

1. 대법원에 걸린 소송의 요점은?

소송의 정식명칭은 King(원고인) vs Burwell(피고인) 이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오바마케어의 끝장을 보겠다는 정치세력의 배후가 밀고 있는 측이 소송을 냈다. 이들의 주장은 오바마케어 보험의 구매를 “연방정부 보험시장” (Federal Market Place 혹은 Exchange) 에서 한 가입자에게 보험료보조(premium tax credits)를 주는 것은 오바마케어 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즉 보조를 주면 안된다는 것이다

2. “연방정부 보험시장” 이란?

오바마케어를 반대하였거나 혹은 보험시장 설립에 드는 경비를 이유로 34개 주 정부는 주 개별적 보험시장을 개설하지 않았다. 따라서, 34주의 주민은 오바마케어를 구매할 수 없게 되었다. 이들을 위하여 연방정부가 34주의 보험시장을 총괄하는 “연방정부보험시장” 을

설립하게 된 것이었다. 한편 MA 주를 포함한 17개 주와 워싱턴 D.C.는 자체적으로 각 주 개별적 주(State) 보험시장을 각각 설립하였다.

3. 주 보험시장에서 구매한 보험에 대한 보험료보조는 합법인 반면, “연방정부보험시장” 에서 구매한 보험에 대한 보조는 위법이라는 근거는?

관련 법조문은 “may receive a premium tax credit if they enroll through an Exchange established by the State” 이다. 문구를 번역하면, “보험료보조는 주정부가 설립한 보험시장서 구매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이다. 조문에 “주정부가 설립한 보험시장” 으로부터 명시되어 있어, “연방정부보험시장” 에서 구매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보조는 위법이고, 국고의 낭비라는 것이 원고측의 주장이다.

4. 오바마 정부의 반론은?

연방정부보험시장이 빠진 것은 단지 범조항을 만들 당시의 착오였다. 법의 총체적 성격으로 보아 보험시장에 상관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보조를 주는 것이 법의 본래의 취지라는 것이다.

5. 판결에 대한 예상은?

양측이 팽팽하여 예상은 어렵다. 그러나 현 대법원은 5명의 공화당계와 4명의 민주당계로 구성되어 있어, 위법이라는 원고측이 약간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면도 있다.

6. 만약 위법이라고 판결이 난다면?

가장 큰 직접적 타격은 현재 연방정부시장에서 구매하여 보험료보조를 받고 있는 6백4십만인 것이다. 이들이 보험료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보조가 없어지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층과, 건강한 젊은 층은 보험 중단을 고려할 것이다. 반면 지병이 있거나 보험이 긴요한 시니어 층은 보험료의 자체 부담이 오르더라도 계속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혜택이 필요한 가입자층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보험회사는 필연적으로 보험료인상을 시도할 것이다. 보험료 인상은 추가로, 영향이 적은 가입자까지도 보험을 그만두게 할 수 있다. 보험회사도 사업성이 적어져 오바마케어 시장에서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2차, 3차 파급효과는 오바마케어가 목적으로 한 의료비 상승억제와 무보험자 퇴치를 도저히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오바마케어는 유명무실하게 되어, 치명상을 입게 될 수 있다.

7. 위의 경우 6백4십만의 시민이 줄지에 보험을 잃게 되는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연방정부, 국회 혹은 해당 주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오바마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대법원에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국회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물론 강 건너 불 보기식이다. 사실 하원은 오

바마케어 폐기를 이미 50년 이상 가결 통과시킨 바 있다. 34개 주 정부는 조속히 주정부 자체의 각기 보험시장을 설립하면 된다. 현재 3개 주가 새로이 주보험시장을 개설하겠다고 신청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 주의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이다. 따라서 전면적 주제는 불가능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판결시에 보조중단에 대한 유예기간 조항을 첨부하면, 갑작스런 대 혼란을 잠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8.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에 대체안이 있나?

없다. 자체내의 의견도 갈라져 있다. 오바마케어가 자동폐기되는 속원을 이룰 수 있어 겉으로 희희낙락할 것이다. 한편 속으로는 의료보험제의 혼란으로 인하여, 내년도 대선 등에서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 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갖고 있다.

9. 만약 원고가 패소하면?

오바마케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현재 대로 실행되어 갈 것이다.

10. 판결결과에 따른 MA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승, 패 어느쪽이든, 전혀 무관하다. 다행히도 MA 주 정부가 자체적으로 MA주 보험시장(mahealthconnector.com)을 설립하였다. 따라서 MA 주민은 “연방정부보험시장” 에서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소송결과와 상관 없이 보조를 계속 받게 된다.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 차에 치였어요. 저는 의료보험도 없는데 어떡하죠? 소송하기 전에는 치료받지 못하나요?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 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안녕하세요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교통사고 케이스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하나인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 지불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사고를 낸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감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의료비가 본인의 자동차 보험이나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놀라기도 합니다. 물론 사고를 낸 가해자와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의료비를 지불하는 것이 공평성 면에서 당연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40여 년 전 뉴저지 법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No-Fault법에 의해 책임과 관계없이 의료비 지급이 됩니다.

사고 과실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서 의료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No-Fault법에서는,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와 사고를 당한 피해자 양측이 각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행자가 차에 치여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의료비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보행자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각 케이스의 사실적 정황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만약 피자배달을 하던 이탈리아 레스토랑 종업원이나 회사의 영업 업무를 보던 직원으로부터 사고를 당하셨다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속해 있는 직장의 직원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일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상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No-Fault보다 Worker’s Compensation이 우선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업무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닐 경우에는 피해자가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의 여부가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입니다.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사고 당시 차를 운전하지 않았어도 본인의 자동차 보험의 PIP (Personal Injury Protection) 혜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길을 걷다가 사고를 당하신 경우에도 본인 자동차 보험의 의료비 혜택이 적용되는 예입니다.

만약 이 예시의 피해자가 자동차 보험이 없는데, 함께 거주하는 부인이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이때에는 부인 자동차 보험의 PIP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앞서 말씀드린 경우에 전혀 해당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뉴저지에서 보행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업무 중도 아니었고, 가족 중 차를 소유한 사람이 없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있을 때, New Jersey Property Liability Guaranty Association (NJPLIGA)로 불리는 주정부의 특별한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다루지 않은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교통사고가 나시면 꼭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자세히 상의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더욱 편안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이번에 신규 런칭한 Song Law Firm의 Mobile Website로 기존의 칼럼 및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www.pospay24.com



POS 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네일살롱, 새 장비들, 매매가격 \$60,000 고급동네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뉴햄프셔(보스톤에서 1시간 거리)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고급동네

일식식당 풀 리커 면허증, 연매상 \$700,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연매상 \$165,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보스톤 서쪽, 연매상 \$310,000 연매상 \$270,000 각각 매매 가능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45,000 매매가격 \$40,000

스프링필드 지역, 부동산,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60,000
21E Test 완료, 은행융자 가능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홀세일, 매매가격 \$50,000

동양식당 변화한 푸드코드, 연매상 \$360,000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20,000 18년만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랍 스토어 연매상 \$90,000 매매가격 \$30,000

섬머빌 지역 런드로맷 연매상 \$115,000 좋은 렌트

네일살롱 매매, 여러장소 고급동네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150,000 매매가격 \$99,000 32년만에 은퇴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9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70,000 소유자 은퇴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2015 여름방학 프로그램

I .SAT I (Old, New)

- 기간: 6.22~8.21
(3주단위,3 sessions)
월~금요일 수업
- 특징
 - 3시간의 수업을 포함한 종일프로그램(9:00~5:30)
 - 최고의 전문 강사진
 - 엄격한 학생및 학사관리 (home work, 단어 test, 매일 test결과보고서 발송)
 - 다양한 선택 가능성

II. College App Essay

- 기간: 7.13~8.21
(2주단위,3 sessions)
- 수업: 주 3일(2시간)
- 강사:
15년 이상의 강의경력
에세이및 교정 전문가
- 수업내용
 - Common App 에세이 주제
 - 자신에 가장 적합한 주제선정과 표현법
 - 완성도를 높이는 교정법

III.저학년을 위한 Writing Class

- 기간:7.13~8.21
(3주단위,2 sessions)
- 수업: 주 3일(2시간)
- 특징
 - 다양한 장르별 글쓰기 수업
 - 오랜 경험의 writing 전문가
 - 문법및 어휘력 향상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